

# 第10篇 地名



서울・抱川間 國道

## 1. 抱川郡名の 由來

포천군은 원래 백제에 속하였으나 고구려에 속하게 되면서 마홀군(馬忽郡)(一名 命旨郡)이라 부르게 되었고, 신라 진흥왕 때에는 견성군(堅城郡)이라 부르다가 경덕왕 때에는 청성(靑城)이라 불렀다.

고려초에 와서는 포주(抱州)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다가 조선 태조 13년(1413)에야 비로소 포천(抱川)이라 부르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마홀(馬忽)·명지(命旨)→견성(堅城)→청성(靑城)→포주(抱州)→포천(抱川)으로 변천해 왔다. 그 뜻은 漢字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려우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바는 아니다.

첫 번째로 마홀은 ‘마(馬)~’와 ‘~홀(忽)’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마~’는 고유한 우리말로 ‘뭍~’이라 하는 것으로, 이것은 ‘ㅁ릭’가 준 것으로 보인다. ‘ㅁ릭’는 ‘높은 곳’을 뜻하는 말로, 산마루, 콧마루, 마루, 용마루 등에도 쓰인다. 그러므로 ‘ㅁ릭’는 ‘높은 산악지대’의 뜻이라 하겠다. 포천군의 지형은 산이 많고 들(野)이 적어 논보다는 밭이 많은 것도 그 까닭이다. ‘~홀(忽)’은 古代 地名에 흔히 붙는 지명접미사로 고구려 지명에 붙는 것이다. 그러므로 포천지역이 고구려의 故地임을 잘 말해주는 증거라 하겠다.

그 뜻은 ‘~골’로 해석되기도 한다.

다음으로 명지(命旨)는 그 뜻이 매우 애매하나 ‘~지’(旨)는 그 뜻이 ‘ㅁ릭’이므로 마홀(馬忽)의 ‘마(馬)~’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임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견성(堅城) 및 청성(靑城)은 각각 ‘굳은 성’, ‘푸른 성’이란 뜻으로 풀이되지만 이미 漢字化한 것임이 틀림없으므로 우리말의 뜻은 이미 아니다.

포주(抱州)도 무슨 뜻인지는, 또 왜 그렇게 이름지었는지는 자세히 알 길이 없으나 포천(抱川)은 ‘냇물을 안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포천군은 ‘한내’라는 이름을 가진 抱川川이 永平川과 합류하고, 그 물줄기가 다시 漢灘江과 어울려 결국 서해로 들어간다.

이러한 포천군의 옛 이름을 통해서 결국 포천땅이 옛날 고구려 땅이었다는 사실과 그 뜻은 ‘높은 산악지대’라고 하는 뜻을 알 수가 있다 하겠다.

## 2. 行政里名 및 自然部落名

抱川郡은 1邑 12面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89個里 298自然部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地名에는 조상들의 生活相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또 지명에는 역사와 전설이 얽혀 있다.

포천군 지명에도 이러한 조상들이 땀흘려 개척한 역사가 反映되어 있으며, 이 고장의 특색있는 말씨가 그대로 지명 속에 남아 있다.

그러면 그러한 포천군의 지명에 나타나는 특색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기로 한다.

○순수한 우리말 지명이 한자어(漢字語) 지명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기와골 > 瓦谷(와곡) (포천 · 설운)

모래재 > 沙峴(사현) (포천 · 서울)

울 미 > 鳴山(명산) (군내 · 명산)

피머리 > 稷頭(직두) (군내 · 직두)

말우리 > 馬鳴(마명) (내촌 · 음현)

안 골 > 內谷(내곡) (내촌 · 내)

○한 祖上이 개척한 고을에는 그 후손들이 조상의 그 개척정신을 이어받아 한 고장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또 조상의 뼈가 묻힌 곳(墓)을 떠나지 않고 한 氏族部落을 이루고 있다.

홍 촌(洪村) (내촌 · 진목)

이 촌(李村) · 조촌(趙村) (가산 · 정교)

원 촌(元村) · 조촌(趙村) (가산 · 우금)

박 촌(朴村) · 안촌(安村) (창수 · 가양)

최가채리(崔加采里) · 조가채리(趙加采里) (신북 · 가채)

유 촌(柳村) · 양촌(楊村) (신북 · 기지)

변 촌(卞村) (신북 · 계류)

○후손들이 번성하면 자연 마을(聚落)도 차츰 늘어나게 되는 것이 자연현상이라 하겠는데 이제까지 없었던 '새말' (新村) '새터' (新基)란 이름의 마을이 많다.

새터 · 신기(新基) (포천 · 동교)

신촌(新村) (군내 · 용정)

새말 · 신촌(新村) (내촌 · 소학)

신촌(新村) (가산 · 금현)

새마을 (소흘 · 송우)

새터 · 신촌(新村) (소흘 · 송우)

새말 · 신촌(新村) (소흘 · 직동)

새터 (창수 · 주원)

새터 (창수 · 주원)

새터 · 신기(新基) (신북 · 만세)

새터 · 신기(新基) (일동 · 사직)

신촌(新村)	(영북·자일)
새터	(영북·자일)
새말	(영북·문암)
새터말·신기(新基)	(화현·화현)

○마을 이름 가운데는 그 위치가 위(上)·아래(下)에 따라 이름지은 웃말(上村)·아랫말(下村)이란 이름이 많다.

아랫말·웃말	(포천·어룡)
〃〃	(가산·마산)
〃〃	(가산·금현)
〃〃	(가산·마전)
〃〃	(가산·방축)
〃〃	(가산·가산)
〃〃	(창수·추동)
〃〃	(창수·주원)

○포천군의 土質이 옹기·사기 만드는 데 적합한 곳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점(粘)말	(포천·신읍)
〃	(내촌·진목)
〃	(이동·도평)
〃	(영북·운천)
사기막(砂器幕)	(내촌·소학)
〃 ( 〃 )	(일동·화대)
사기점(砂器店)	(일동·길명)

○지명으로는 動植物의 分布까지도 짐작된다. 이제는 滅種되었거나 稀貴한 動植物의 分포를 지명을 통하여 어느 정도 추적할 수가 있다.

소나무(松)	(가산·무림/소홀·송우/신북·가채/영중·성동/이동·노곡)
오동나무(梧)	(포천·설운/내촌·진목/신북·가채/관인·냉정)
지초(芝)	(영중·거사/일동·화대/화현·지현)
icip(葛)	(가산·이가팔/영중·금주)
느릅나무(榆)	(영중·성동/관인·초과)
보리(麥)	(일동·화대/관인·삼률)

이 외에도 매화(梅)(내촌·음현), 가래(楸)(가산·가산), 삼(麻)(가산·마전), 괴목(槐)(가산·우금), 배(梨)(가산·이곡), 향목(香木)(신북·기지), 닥(楮)(영중·금주), 잣(柏)(영중·성동), 버들(柳)(일동·유동), 피(稷)(일동·사직), 복숭아(桃)(이동·장암), 개암(榛)(이동·연곡), 벼(禾)(영북·자일) 등이 있다.

第10篇 地名 出來

동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용(龍) (포천·신읍/포천·설운/군내·용정/가산·정교/소홀·이동교/일동·유동/일동·수입/관인·냉정)

호랑이(虎) (포천·신읍/포천·동교/일동·유동)

두꺼비(蟾) (가산·방축/창수·추동)

여우(狐) (이동·장암/이동·산정)

이 외에도 비둘기(鳩)(가산·가산), 백로(鷺)(영동·거사), 거위(鶩)(일동·기산), 곰(熊)(일동·수입), 매(鷹)(이동·장암), 거북(龜)(이동·도평), 제비(燕)(이동·연곡), 송냥이(狼)(이동·노곡), 도롱뇽(蛟)(관인·중), 수리(鷲)(관인·중), 까마귀(烏)(관인·초과), 사향노루(麝)(영북·산정) 등이 있다.

○옛부터 내려오는 遺物·遺跡은 훌륭한 지명의 동기가 된다.

정자(亭子) (포천·선단/일동·길명)

서원(書院) (가산·방축/신북·기지)

창고(倉庫) (신북·기지/관인·삼울)

향교(鄕校) (이동·노곡)

○포천군에는 南部에는 李成桂 장군, 北部에는 弓裔와 관련있는 지명이 많다.

○이성계 장군과 관련있는 지명

참나무장이(眞木亭) (내촌·마명)

여덟밤이(八夜洞) (내촌·음현)

술막(酒幕) (소홀·송우)

용상동(龍床洞) (소홀·이동교)

막(幕)골 (소홀·무봉)

숯터(禾垞) (일동·화대)

○궁예와 관련있는 지명

파주(坡州)골 (영중·성동)

여우고개(狐峴洞) (이동·장암)

도마치(道馬峙) (이동·도평)

남창동(南倉洞) (관인·초과)

울음산(鳴聲山) (영북·산정)

향서(降書)밭골 ( // · // )

야전(野戰)골 ( // · // )

가는(敗走)골 ( // · // )

여우고개 ( // · // )

망봉(望峰) ( // · 망봉)

궁예왕굴(弓裔王窟) ( // • 산정)

○포천군 지명 가운데는 좀 특이해서 어학적인 관심이 가는 것이 많다.

신팔(薪八) • 서파(西坡) (내촌 • 신팔)

화대(禾垓) • 휴기(休基) (일동 • 화대)

‘薪’은 ‘설’이요, ‘八’은 음독(音讀)하여 ‘팔’이라 하면 ‘설팔’, 곧 ‘땀나무 팔다’의 뜻이다. ‘서파’(西坡)는 그 말을 발음대로 적은 것으로 보인다.

또, ‘禾’도 그 훈독(訓讀)은 ‘수’이므로 ‘화대’(禾垓)나 ‘휴기’(休基)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休’는 ‘쉬다’의 뜻이므로이다.

여덟밤이 • 八夜洞 (내촌 • 음현)

배미골(夜味洞) (신북 • 심곡)

밭(田)을 세는 단위는 ‘~베기’라 하고, 논(畓)을 세는 단위로는 ‘~배미’라 하는데 야미(夜味)는 바로 이것을 훈 • 음차(訓 • 音借)한 것이요, 팔야동(八夜洞)은 곧 ‘논이 여덟 배미 있는 마을’이란 뜻이 될 것이다.

## 1) 抱川邑

### (1) 新邑里

장(場)거리

점(粘)말

호병동(虎瓶洞)

요 골

원(元)모루

### (2) 魚龍里

정문동(楨門洞)

하촌(下村)

건너말

바깥말(쌈말)

정목골

안 말

비석(碑石)거리

상촌(上村)

윗 말

### (3) 自作里

자재기(안말 • 너러바위)

파발막(把撥幕)

### (4) 仙壇里

외촌(外村)

모퉁이말

건너말

성황당(城隍堂)

묘소(墓所)

第10篇 地名 山來

중간(中間) 말  
정자동(亭子洞)

장승거리

(5) 雪雲里

오곡(梧谷)

오 리 골

해룡(海龍)

와곡(瓦谷)

기 와 골

오지재고개(峴)

사현(砂峴)

모 래 재

하송우(下松隅)

제청(祭誦) 말

해룡산(海龍山) (山)

상시막골

(6) 東橋里 동(東)다리

원동교(元東橋)

목동(木洞)

나 무 골

신 기(新基)

새 터

평촌(平村)

호암(虎岩) 고개(峴)

포천천(抱川川)

한내(川)

2) 郡內面

(1) 舊邑里

효자(孝子) 거리

청성산(靑城山) (山)

풍류산(風流山) (山)

옥계천(玉溪川) (川)

(2) 龍井里 요물

복장동(福藏洞)

시류지(詩流址)

신 촌(新村)

새 말

(3) 柳橋里

평 촌(坪村)

벌 말

청량동(淸涼洞)

가기동(嘉基洞)

가래피

청량천(淸涼川) (川)

유도리(有道里)

(4) 左儀里

목욕동(木浴洞)

제월동(霽月洞)

(5) 鳴山里	울 미		
화 촌(花村)		중 촌(中村)	
(6) 稷頭里	피머리		
수원동(水源洞)		수원산(水源山) (山)	
농파동(農坡洞)	논 배		
(7) 上城北里	갓 뒀		
탄 곡(灘谷)			전너말
상 성(上城)		하성북(下城北)	
송 정(松亭)			재래울
	셋 말	곡 촌(谷村)	골 말
호명동(虎鳴洞)	범허리	백석동(白石洞)	백석말
대 촌(大村)		영광정(榮光亭)	

### 3) 內村面

(1) 眞木里			
오림포(梧林浦)			쑥고개(峴)
홍 촌(洪村) 말		점(粘) 말	
	바깥마을		골 말
주막(酒幕) 거리		죽엽동(竹葉洞)	
광현(廣峴)	큰넉고개	죽엽산(竹葉洞) (山)	
	작은넉고개		
(2) 馬鳴里	말우리		
진목정(眞木亭)	참나무쟁이		
(3) 奄峴里	음고개		
안양동(安養洞)		팔야동(八夜洞)	여덟밭이
	둔 터	매화동(梅花洞)	
	마야위	매봉산(매峰山) (山)	



第10篇 地名 山來

(4) 內 里

비 석(碑石)거리

능 곡(陵谷)

능 골

고장촌(高藏村)

기장대(將將臺)

장기 바위

내 곡(內谷)

안 골

독바위(岩)

(5) 集鶴里

사기막(砂器幕)

평 촌(坪村)

신 촌(新村)

새 말

벌 말

효죽(孝竹)박이

국사봉(國師峰) (山)

(6) 薪八里

서파(西坡)

중(中) 말

청담(淸潭)

맑은데미

안 터

윗 말

4) 加山面

(1) 馬山里 말 미

후평동(後坪洞)

뒷 뜰

아랫 말

윗 말

(2) 甘岩里 감바위

담방동(淡芳洞)

담뱅이

당 골

담녕말

(3) 坊築里 방축골

동방축동(東坊築洞)

거리장

아랫 말

아랫 말

서 원(書院) 말

웃 말

웃 말

섬암동(巖岩洞)

두껍 바위

서방축동(西坊築洞)

화봉산(華峰山) (山)

군자동(君子洞)

(4) 加山里

추곡동(楸谷洞)	개래울	시우동(時雨洞)	싯 곳
간 촌(間村)			아랫말
평촌동(坪村洞)	별 말 안 말		웃 말

(5) 鼎橋里 솟다리

	별 말	조 촌(趙村)	
이 촌(李村)		용 화(龍化)골	

(6) 金峴里

광촌동(廣村洞)	너베기 중간말 웃 말	죽곡동(竹谷洞) 신촌동(新村洞)	대대울  돌모루
궁촌동(宮村洞)	궁 말 아랫말 웃 말	지석동(支石洞)	뚝뱅이 고인돌

(7) 友琴里

마치동(磨時洞)	마치미	원 촌(元村)
괴하동(槐下洞)	괴 기 넙 말	조 촌(趙村)

(8) 麻田里 삼밭골

	밤 밭 황새메기	간 촌(間村) 마곡동(麻谷洞)	
가재동(佳才洞)	가재울 아랫말 웃 말		뒷 골 아랫말 웃 말

5) 蘇屹面

(1) 松隅里 솔모루

새마을	주 막(酒幕)	술 막
-----	---------	-----

第10篇 地名 由來

하송우(下松隅)		신 촌(新村)	새 터
미 동(溪洞)	곤당골	태봉산(胎峰山) (山)	
산막(山幕)골		옥녀봉(玉女峰) (山)	
추산동(秋山洞)	갈 비		

(2) 二東橋里

용 상(龍翔)골		축석령(祝石嶺) (嶺)	
부 인(婦人)터		천보산(天寶山) (山)	
수 내(水內)	물 안	석문령(石門嶺) (嶺)	석무니고개(嶺)

(3) 茂林里

내루(內樓)		송정(松亭)	
중촌(中村)			

(4) 梨谷里 배골(배울)

송현(松峴)	솔 개		
--------	-----	--	--

(5) 直洞里

신촌(新村)	새 말		할미재(峴)
평촌(坪村)		운악산(雲嶽山) (山)	
구현(鳩峴)	비득재(峴)		

(6) 古毛里

하성동(霞城洞)	한성골	간 촌(岡村)	셋 말
	넙 말		삼거리

(7) 初加八里

능리(陵里)	능 말	음 성(陰城)말	
홍 안(紅岸)	붉은데기		안 말

(8) 二加八里

갈오리(葛烏里)	갈오리		방아다리
동 산(東山)	동뫼말	평 촌(坪村)	벌 말
	셋 말	대 촌(大村)	큰 말

(9) 茂峰里 거친봉

사 곡(寺谷)

절 골

막 곡(幕谷)

막 골

6) 蒼水面

(1) 楸洞里 가래울

상추동(上楸洞)

음 지(陰地) 말

하추동(下楸洞)

3·8고개(峴)

쇠퓌이

뒷 골

안골터

안 말

벌 말

느티나무배기

모랭이

큰 말

두껍바위

아랫말

웃 말

누루목

(2) 注院里

임봉동(林鳳洞)

새 터

등 피

절취미

신취부락

서촌(西村) 말

옥병(玉屏)

셋 터

전너말

금주동(金注洞)

셋 말

뒷 말

군자동(君子洞)

아랫말

웃 말

(3) 可養里 갱이

풍패동(風佩洞)

메추골

장승거리

범테미

원가양(元可養)

박 촌(朴村) 말

안 촌(安村) 말

장 자(長者) 골

벌 말

(4) 伍佳里

금 수(金水)

금수정(金水亭)

능둔지

개누리

아랫말

第10篇 地名 由來

사 창(社倉) 부락  
보장산(寶藏山) (山)

햇냉기

창옥명(蒼玉屏) (岩)  
영평천(永平川) (川)

(5) 姑蘇城里

울 우(栗隅)

바모루(큰말)  
새 말

중 간(中間) 말

다림둔

(6) 雲山里

설운리(雪雲里)

밤 골

양 지(陽地) 말

튀농골

도리연

곧은여울(川)

응달말

광산(鑛山) 골

뒷 골  
절골

(7) 新興里

먹자울

소두문동(小杜門洞)

버들골

대두문동(大杜門洞)

7) 新北面

(1) 加采里

최가채리(崔加采里)  
조가채리(趙加采里)  
오장동(梧章洞)

승방동(僧房洞)  
송(松) 골  
해방촌(解放村)

(2) 機池里 틀무시

유 촌(柳村)  
양 촌(楊村)  
향(香) 나무배기  
독 곡(獨谷)

공(空) 섬  
외오동(外吾洞)  
천주산(天柱山) (山)

바더울

(3) 新坪里

석우동(石隅洞)

돌모루

궁(罍) 말

서 원(書院) 말	배미골	사 창(社倉) 말	
(4) 萬歲橋里			
북만세(北萬歲)	들바위	남만세(南萬歲)	새 터
	한바위	신기동(新基洞)	요 골
(5) 深谷里	깊이울		
야미동(夜味洞)	배미골	왕방산(旺方山) (山)	
구사골	논건너	덕령산(德嶺山) (山)	하늘봉(峰)
	벌 말		무력고개(峴)
(6) 溪流里			
약물둔지(藥水屯地)	쇠죽골	변 촌(卞村) 말	
양 지(陽地) 말	자릿말	방 축(防築) 골	
	벌 말	외북천(外北川) (川)	
		내고일(內古日)	
		외고일(外古日)	
(7) 古日里			
내고일(內古日)			오매골
외고일(外古日)			텃 골
(8) 三星堂里			
내삼성(內三星)	무루산		녹쟁이
	멧돌안	중 간(中間) 말	무수매기
외삼성(外三星)			
(9) 三政里			
능(陵) 골			

第10篇 地名 山來

(10) 葛月里 칠월이

부곡동(釜谷洞)

가마골

송둔지(松屯地)

소둔지

간자동

(11) 琴洞里

지 동(紙洞)

새 목

상아동

새 목고개(峴)

(12) 德屯里

원덕둔(元德屯)

새 청

대 군(大軍)터

사정동(射亭洞)

미라치

중현산(鍾懸山) (山)

8) 永中面

(1) 梁文里

능 원(陵園)

삼 현(三峴)

삼달밭

후 포(後浦)

뒗개울

관모산(冠帽山) (山)

광 평(廣坪)

나분들

(2) 金珠里

궁 현(宮峴)

궁 뜰

만세교(萬歲橋)

갈 현(葛峴)

가르계

저 전(楮田)

닥 밭

수일동(水日洞)

물아래

태 봉(胎峰) (山)

금 촌(金村)

금주산(金珠山) (山)

(3) 居士里 거시울

백로주(白鷺洲)

금화봉(錦華峰) (山)

종 지(種芝)골

남 산(南山)뒗

은 현(隱峴)

은갯밭

벼락바위(岩)

(4) 城洞里 잣골(잣맹이)

백 교(柏橋)

신 장(新場)

새장터

유 정(楡亭)	느릅쟁이	파 주(坡州)골
삼 산(三山)		관음산(觀音山)(山)
(5) 永平里		
대 사(大寺)	대살리	
(6) 永松里		
천변촌(川邊村)		영평천(永平川)(川)
	붓두루	

### 9) 一東面

#### (1) 吉明里

사기점(砂器粘)		바자골
서 촌(西村)		장방모루
	꼭두마위	말고개(峴)
정 자(亭子)골		명덕천(明德川)(川)
두리동(斗里洞)		

#### (2) 柳洞里

상 촌(上村)		벌 판
하 촌(下村)		선달재
평 촌(坪村)	벌 말	양지편(陽地便)
유 촌(柳村)	버들골	구 룡(九龍)고개(峴)
원 통(圓通)		용호동(龍虎洞)

#### (3) 機山里 들 피

간 촌(間村)	셋 말	양 촌(良村)	생 이
	배 리		말 피
	핀 들	길고지(吉古地)	
아 곡(鶯谷)		소 야(蘇野)	
광 석(廣石)	나분들	해방촌(解放村)	
장 주(長洲)	장사래	청계산(淸溪山)(山)	



길마자고개(峴)  
싸리고개(峴)

마당바위(岩)

(4) 禾垵里 슷터(休基)

지 청(芝靑) 말  
마 곡(麻谷)  
사기막(砂器幕)

마구랭이

백 구(麥邱)

원부리  
한나무골  
무리울

(5) 社稷里

백인곡(百認谷)  
조 산(祚山)  
강씨봉(姜氏峰)(山)

뱀 말  
조치미

도성고개(峴)  
양 암(洋岩)

앵 바위(岩)

(6) 水入里

가 계(佳溪)  
응 현(熊峴)

상갈기  
중갈기  
하갈기  
곰베미

산내지(山內地)  
와룡암(臥龍岩)(岩)  
수입천(水入川)(川)  
일동천(一東川)(川)

10) 二東面

(1) 場岩里

광 산(鑛山)골  
응 암(鷹岩)  
덕(德)재

개미마을  
매 바위  
바깥덕재  
귀박골  
마당바위

배 선(拜仙)골  
신로령(神露嶺)(嶺)  
호 현(狐峴)  
농 암(農岩)

여우고개(峴)  
늪바위(岩)  
농바위

(2) 都坪里

도리동(桃李洞)  
백운동(白雲洞)  
약 수(藥水)터

도리돌

접(粘)말  
도마치(道馬峙)(峴)  
구정동(龜汀洞)

2. 行政里名 및 自然部落名

승방동(僧房洞)  
 광덕산(廣德山) (山)  
 백운산(白雲山) (山)  
 가리산(加里山) (山)  
 박달봉(朴達峰) (峰)

감투봉(峯)

각홀봉(角屹峰) (峰)  
 약사령(藥寺嶺) (嶺)  
 자등현(自等峴) (峴)

(3) 燕谷里 제비울

만가대(萬家垜)  
 불 당(佛堂)골  
 도 포(都浦)  
 봉하대(烽火臺)  
 원 평(遠坪)  
 조안동(趙安洞)

골 논

장좌동(長佐洞)

쓰레골

속거울

돌개벌

똥둔지(屯地)

개암밭골

출라이산(山)

진전동(榛田洞)

주행산(走行山)

심 재(心峴) (峴)

(4) 蘆谷里 갈 골

평 촌(平村)  
 승 진(勝進)마을  
 향 교(鄉校)골

섬배미

답 동(畓洞)

개무지

섬배미

생계골

송 이(松茸)

생이(山)

장승백이

낭유현(狼踰峴) (峴)

독점말

응 산(鷹山)

매바위(岩)

11) 官仁面

(1) 中 里

신흥동(新興洞)  
 교 동(蛟洞)  
 심 동(深洞)  
 판거동(板巨洞)  
 문암동(文岩洞)  
 부곡리(釜谷里)  
 약수동(藥水洞)

신우골

종자산(種子山) (山)

메롱골

지장봉(地藏峰) (峰)

심 재

화인봉(火人峰) (峰)

늘거리

향로봉(香爐峰) (峰)

문배뜰

수리봉(峰)

할미재고개(峴)

새재고개(峴)

명우리

삼형제암(三兄弟岩) (岩)

第10篇 地名 由來

(2) 三栗里

맥 동(麥洞)	베 락골	은하동(銀河洞)	
울목동(栗木洞)	밤나무골	하랑동(河浪洞)	
북암동(北岩洞)	북바위		담 터
장수동(長水洞)		고남산(高南山)(山)	

(3) 初果里 마감동

오금동(烏金洞)		남창동(南倉洞)	
연정동(練亭洞)	으늬물	남창(南倉) 고개(峴)	
가자동(可子洞)	가제동		돌재 고개(峴)

(4) 炭洞里 숲 골

유곡동(楡谷洞)	느릅실	신흥동(新興洞)	
붕의동(燧儀洞)	붕우재	인정동(仁井洞)	
원탄동(元炭洞)		오 리(梧利)골	
냉정동(冷井洞)	찬우물	포막동(布幕洞)	
용 담(龍潭)			

(5) 射亭里

능(陵) 말			뗏마루
새청동	까치골		

12) 永北面

(1) 雲川里

보육원동(保育院洞)	꿀 안		붉은데기
점(粘) 말			가늡골
	바모루	오호부락(五號部落)	
	진모루		

(2) 自逸里

서자동(西自逸)	서지울	동자일(東自逸)	동이질
----------	-----	----------	-----

2. 行政里名 및 自然部落名

신 촌(新村)		화적연(禾積淵)	벗가리소(沼)
송 정(松亭)	솔동지	육호부락(六號部落)	
	새 며	팔호부락(八號部落)	

승 지(承旨)골

(3) 文岩里

문교동(文橋洞)			방죽말
혁장동(革場洞)	석장리		새 말
	본 말		

(4) 夜味里 배 미

봉 화(燧火)골		회(灰)가마골	
금 곡(金谷)	쇠골		되내지고개(峴)
서두천(西頭川)	서두물		

(5) 山井里

다대동(多大洞)	다대울	망월동(望月洞)	보르미
항 서(降書)밭골		망 봉(望峰)(山)	
야 전(野戰)골		명성산(鳴聲山)	울음산(山)
구천동(九川洞)	산 안	사향산(麝香山)(山)	
정항동(井項洞)	우물피기	덕(德)재	안덕재(峴)
사실골			

(6) 大回山里

사 동(寺洞)	절 골	신선봉(神仙峰)(峰)	
본 동(本洞)			밤골고개(峴)
용 마(龍馬)골			비둘기낭(崖)
불무산(佛舞山)(山)			

(7) 小回山里

	촌 말	은정산(銀井山)(山)	
	앞 골		동자리고개(峴)
	뒷 골		

### 13) 花峴面

#### (1) 明德里

삼석동(三石洞)	서돌골	아랫말
	언덕말	윗말
원명덕(元明德)		묵방동(墨防洞)
	벌말	먹뱅이
	둔덕말	솔치
		명덕천(明德川)(川)

#### (2) 芝峴里 지재

상촌(上村)		연능동(延陵洞)	연능안
두문동(杜門洞)			문암골
비선동(飛仙洞)	비시골		솔피재(峴)

#### (3) 花峴里

달인동(達仁洞)			섬두둑
강구동(江口洞)			골말
웅통암			성가마골
선촌(仙村)		신기동(新基洞)	셋터말
영선동(迎仙洞)		양지동(陽地洞)	철비(鐵碑)거리
장(場)터		시우동(時雨洞)	비시락골
	벌말	운악천(雲嶽川)(川)	

## 3. 地名에 얽힌 由來談

산이 높고 골은 깊고 물은 맑은 포천군에 골골 살살이 마을이 발달되어 있다. 마을마다에는 조상들의 손길로 엮고 길들여진 집들이 정답게 머리를 맞대고 응기종기 모여 있으며, 이곳에서 후손들이 조상들의 숨결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을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고, 遺物·遺蹟에는 傳説과 由來談이 없을 수 없다. 포천군에는 600여 마을의 약 반수가 되는 270여 地名이 그 유래담과 전설을 잃지 않고 있다. 그 마을을 왜, 무슨 動機로 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要因으로 나뉘어진다.

自然・産物	85	遺跡・歴史	64
地形・位置	42	偉人・人物	24
氏族	8	기타	51

총 274

이와 같이 地名의 由來를 구분하여 보면 결국 자연이나 특산물, 또는 유적과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지형이나 방향・위치 등에 따라 지명을 짓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장거리 (場거리) (포천읍 신읍 1리)

군청이 1930년대에 군내면 구읍리로부터 현 위치로 이전됨에 따라 당시 포천면 사무소도 自作 里로부터 신읍리로 이전되었으며, 그때부터 상인들이 신읍리 일대로 모여들어 상업이 번창하게 되었다.

포천읍 신읍리를 중심으로 시골 마을에서는 물건의 매매를 위하여 신읍리로 모여들게 되어 이곳을 '장거리'라 부르게 되었다.

### 2) 호병동 (虎瓶洞) (포천읍 신읍 4리)

신읍 4리 부락의 지형이 瓶의 형태를 띠고 있어 회병(廻瓶)꼴이라 불리워지다가 변음되어 요즘은 '호병' (虎瓶 또는 戶兵)꼴이라 부르게 되었다.

### 3) 점말 (粘말) (포천읍 신읍 5리)

현재 태우실업이 위치한 자리 옆에 오지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었다 하여 이 마을을 점토(粘土) 마을이라는 뜻으로 '점말'이라고 하며, 일명 원모루라고도 한다.

### 4) 어룡리 (魚龍里) (포천읍)

마을 뒤편으로 조득산이라는 험준한 산이 있는데 왕방산에서 내려다 보면 위쪽으로는 龍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냇물이 흘러 물고기(魚)가 많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 있는 연못에서는 잉어(鯉魚)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마을 이름을 어룡리(魚龍里)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용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조득산의 용머리 부분이 무겁지 않도록 나무를 심지 않고 황무지인채 남겨 두었다고 한다.

### 5) 정문동(楨門洞) (포천읍 어룡 1리)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寶城 닷씨의 12대조인 夢櫻의 부인 柳씨가 남편과의 사별 이후 갖은 고초 끝에 遺腹子로 길러 15년 후에 아들을 장가들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사를 남편 없이 혼자 맞게 되는 것이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유씨 부인은 자결을 하고 말았다. 이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이조 현종 4년(1663) 3월 2일 정문을 내려 주었다. 또한 그 남편도 생존시에 그 부친의 병환이 위독하였을 때, 산삼과 바위꿀 즉 石滄이 특효하다는 말을 듣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 온갖 고생 끝에 산삼과 석청을 구하여 선친께 올린 결과 큰 효험을 보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肅宗 때 효자문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때 이후로부터 이 마을을 '정문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6) 파발막(把撥幕) (포천읍 자작 2리)

松都가 수도이던 고려시대에 한양을 왕래하던 人馬가 쉬어가던 파발막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말(馬)을 매어두던 馬廄와 酒幕이 있었다고 해서 이 마을을 지금까지도 '파발막'이라고 한다.

### 7) 성황당(城隍堂) (포천읍 선단 1리)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지금 아카시아나무가 있는 자리에 신배나무가 있었는데 이곳을 '성황당' (城隍堂)이라 부르게 되어 동소문 밖으로 유명하던 곳이다. 그때부터 이곳을 '성황당'이라 부르게 되었다.

### 8) 묘소(墓所) (포천읍 선단 2리)

이조 25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이 현종 7년(1841) 11월 2일에 승하하자 양주군 진관(津寬)에 모시었다가 15년 후인 철종 7년(1856)에 왕방산 아래 이곳에 이장하였다. 이때부터 이 마을을 '묘소부락'이라 부르게 되었다.

### 9) 알매 (포천읍 선단 2리)

이 부락 앞쪽에 있는 산의 모양이 새가 알을 품고 있는 모양과 같다고 해서 '알매마을'이라고 하며, 또한 이 마을이 선단 2리 마을 가운데서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하여 '아랫

말'이라고도 한다.

### 10) 정자동(亭子洞) (포천읍 선단 3리)

마을 한 가운데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어 커다란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다.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또 마을에 큰 일거리가 있을 때는 이 나무 밑에서 온 동리사람들이 모여 회의도 한다. 그래서 이곳 마을을 '정자동'이라 하고, 또 이 일대를 정자밭, 정자논이라 한다.

### 11) 제청말(祭請말) (포천읍 설운 1리)

藥峰이 조상의 묘를 쓰기 위하여 자리를 찾고 있는데 난데없는 노루(獐) 한 마리가 나타나 이상한 몸짓으로 묘자리를 잡아 주었다고 한다.

그후 서씨 문중에서는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祭堂을 지어 놓았는데, 그 후로부터 이곳을 '제청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12) 해룡(海龍) (포천읍 설운 2리)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큰 홍수가 났을 때, 이곳 일대가 물에 잠겨 바다처럼 되었다 한다. 지금도 왕방산 마루에 배말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 홍수가 얼마나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이 마을에 있던 이무기가 龍이 되어 하늘로 승천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마을을 '해룡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13) 원동교(元東橋) (포천읍 동교 1리)

이 마을 동쪽에 설운리와 통하는 커다란 다리(橋)가 있어 이 마을을 '동다리'라 불러 왔는데, 1937년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 西面을 포천면이라 개칭하면서 이 마을의 법정 명칭을 '동교리'라 부르게 되었다.

### 14) 용정(龍井) (군내면 용정리)

이곳에는 용(龍)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는 우물이 있는데, 지금도 피부병이나 옷(漆)이 오른 사람들이 이 우물물로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고 한다.

또 이곳을 속칭 '요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용우물>용물>요물이 된 것으로 보인다.



### 15) 복장동(福藏洞) (군내면 용정리)

옛날 이 마을에는 음력 정월에 한 해의 福을 가져다 준다는 복조리 장수가 많이 살았다고 해서 이곳을 ‘복장사’ 또는 ‘복장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 16) 평촌(坪村) (군내면 유교리)

이 마을은 사방에 산이 없고 말(馬)이 뛰어 놀 수 있을 만큼 넓고 큰 벌판이 있다 하여 ‘평촌’이라 부르고, 또 속칭으로는 ‘벌말’이라 부른다.

### 17) 청량동(淸涼洞) (군내면 유교리)

원래 이곳은 큰 개울이 있어, 그 물이 맑고(淸) 시원해서(涼) 이 개울물을 청량천(淸涼川)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큰 뚝을 막고 붓물을 만들어 지금과 같은 넓고 기름진 농경지를 만들어 후손들이 번창하고 마을이 크게 발달하였다 한다. 그래서 이곳을 ‘청량동’이라 부르고, 속칭으로는 ‘청량개’라고도 한다.

### 18) 명산리(鳴山里) (군내면 명산리)

이 마을에 씨족사회를 이루고 있는 固城李氏 한 사람이 연로하신 부친을 모시고 가난하게 살고 있었다. 효성이 지극한 이씨는 부친에게 맛있는 좋은 음식을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괴로웠었는데 연로한 부친은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이씨는 생전에 못다한 효심으로 돌아가신 아버님의 墓라도 좋은 자리에 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러나 地質을 모실 형편도, 좋은 명당자리에 묘를 쓸 형편도 못 되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하얗게 sen 다음 날 새벽, 문 밖을 나서는데 長衫을 걸친 道士 한 분이 마을 어귀에서 무서운 시선으로 한 곳을 凝視하고 있었다. 효자 이씨는 그 도사에게 다가가서 그 연유를 물었다. 그러자, 그 도사는 竹杖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墓자리로서 너무나 좋은 곳이라며 탄복하면서 깃다리(지금의 좌의 2리) 쪽으로 훌연히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 효자 이씨는 이곳이야말로 하늘이 제게 주신 명당이라고 생각하고 墓土를 판죽 산 전체가 울리더라는 것이다.

그 후부터 그 마을을 ‘명산리’, 속칭 ‘울피’라 이르게 되었다 한다. 그 정체 불명의 도사까 바로 無學大師라는 설도 있다.

### 19) 목욕동(木浴洞) (군내면 좌의리)

옛날부터 이곳은 貯水池와 防禦이 많아 동네사람들이 沐浴을 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을 현재도 ‘목욕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0) 메기울(曠谷) (군내면 상성북 2리)

이곳은 옛날에 난리가 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드는 피란곳인데 이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불쌍한 난민들에게 음식을 먹여주어 救濟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을 ‘메기울’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난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한숨짓고 탄식하였다고 해서 ‘탄곡’이라 하기도 한다고 한다.

### 21) 성북(城北) (군내면 성북리)

이곳은 지금도 후손들이 살고 있는 全州李氏 이원희 씨의 11대 조부가 효자로 소문이 나서 孝子門을 세워 ‘정문고개’라 부르기도 하며, 또 군내에서는 잣(栢實)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마을 앞뒤에는 잣나무가 지금도 많아 ‘잣뒤’라 부르기도 한다.

### 22) 백석동(白石洞) (군내면 하성북리)

현재 抱川綜高 뒤에 있는 마을로 마을 뒤에 있는 白石을 깎아 舊邑里에 있는 彌勒佛 머리를 썬던데 백석마을 사람들이 자기 마을의 흰돌(白石)을 가져간다고 시비를 걸면서 그 흰돌을 제 위치에 다시 갖다 놓았다.

그랬더니 다시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흰돌이 다시 미륵불 머리에 썬워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은 흰돌, 곧 ‘白石’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3) 오림포(五林浦) (내촌면 진목리)

오랜 옛날에 어진 人士 다섯 사람이 寓居하였다고 한다. 그 다섯 사람의 성명은 알 길이 없으나 五人浦가 변음하여 ‘五林浦’가 되었다고 한다.

### 24) 홍촌말(洪村말) (내촌면 진목리)

옛날부터 洪氏가 많이 산다고 해서 이 마을을 ‘洪村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5) 큰덕고개 (내촌면 진목리)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지는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진 이 고개는 숲길 50여 리나 된다.

고개 마루턱에 올라 보면 전후 좌우가 탁 트여 광활한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지형이 크고도 넓다고 해서 '큰덕고개'라 부르기로 했다 한다.

## 26) 쭉고개 (내촌면 진목리)

옛날에는 이 고개 마루턱에서 서쪽으로 몇 십 미터 내려가면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샘물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샘솟아나는 것이었다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넘어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킁킁한 목을 이 술로 축일 수가 있었다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엄격한 규율이 있었으니 그것은 누구나 그 샘물을 꼭 한 잔씩만 마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욕심쟁이 술꾼이 좋은 술맛에 반해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규율을 깨뜨리고 한 잔을 더 마셨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술은 '쭉' 들어가고 맹물만 계속 솟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도 아무리 가문 날씨에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서 오가는 나그네의 목을 풀어주고 있다.

## 27) 점말 (粘말) (내촌면 진목리)

이곳은 오랜 옛날부터 웅기를 굽는 곳이었다. 현재는 푹배기 정도나 구워 옛날을 말해주고 있을 뿐이다.

'점말'이란 뜻은 '粘土마을'이란 뜻이 줄어서 그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 28) 참나무장이 (眞木亭) (내촌면 마명리)

이 마을 길가에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오가는 사람들이 그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했다고 한다.

하루는 漢陽과 威興을 오가던 李成桂 장군이 이곳에 쉬면서 그 이름을 '참나무장이'라고 命名했다고 한다.

그후 100년쯤 지나 그 참나무는 나이가 많이 들어 말라 枯死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름만은 지금도 '참나무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 29) 말울이 (馬鳴里) (내촌면 마명리)

이조 7대 世祖가 왕위에 있을 때 자신의 死後 문힐 만한 명당 자리를 찾아 하루는 신하들과 말을 타고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에 타고 가던 말이 갑자기 크게 울면서 이곳에서 서쪽으로 3km쯤 떨어진 光陵으로 달려가서는 우뚝 서기에 전후좌우를 살펴보니 과연 明堂 자리가 분명하므로 이곳을 능자리로 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말이 울던 마을은 ‘말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30) 둔터 (屯터) (내촌면 음현리)

옛날부터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큰 戰亂이 있을 때는 이곳에 군대가 駐屯했다고 한다. 이 마을은 地形地物이 특이해서 군사상 꼭 필요한 要塞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 마을을 ‘둔터’라고 한다.

### 31) 여덟밤이 (八夜洞) (내촌면 음현리)

이조 태조인 李成桂 장군이 한양과 함흥을 왕래할 때 이 마을에서 여덟 밤, 즉 8일 동안을 지냈다고 하여 ‘여덟 밤’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이 마을 동쪽으로 보이는 산에서 매(鷹) 사냥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산을 ‘매봉산’이라 부르게 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며, 타고 간 말(馬)을 매어 두던 바위를 ‘마야위’라고 한다고 한다. 이 ‘마야위’란 말바위>말하위>마아위>마아위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 32) 비석거리 (碑石거리) (내촌면 내리)

이조 世祖 때 공신인 金碩의 누이이며, 洪義達의 아내인 安東金氏의 烈女碑를 비롯하여 역대 縣監들의 善政碑 및 功德碑 등 많은 비석이 모여 있는 곳이라 해서 이곳을 사람들은 ‘비석거리’라 일컫게 되었다.

### 33) 능골 (陵골) (내촌면 내리)

이조 7대 世祖의 능자리를 정하게 되었을 때 현재 광능의 토질과 이곳 토질을 비교하게 되었는데 이곳의 흙의 색깔이나 흙의 성질이 현재의 光陵의 것만 못하여 결국 능은 쓰지 못하게 되

였으나 세상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 이 마을을 ‘농곶’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34) 기장대 (棋將臺) (내촌면 내리)

이 마을 앞에는 병풍 같은 바위가 둘러져 있고 맑은 물이 바위에 부딪치며 아름다운 景觀을 이루고 있는데 그 절벽에는 楓岩이라 크게 새겨져 있다.

또 바위 바닥에는 장기판이 그려져 있는데 옛날 이 마을 근방에 있는 선비들이 모여 장기를 즐겼다는 전설이 있다.

또 일설에는 이곳에서 늙은 장수가 노닐었다는 얘기도 있으며, 그 옆에는 아기장수의 발자국이라 하여 오목오목 패인 곳이 여럿 있다.

### 35) 사기막 (砂器幕) (내촌면 소학리)

500여년 전부터 이곳은 사기그릇을 구워 생산하던 곳이라 한다.

지금도 이곳 논바닥을 깊이 파 보면 깨진 사기그릇 조각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다.

### 36) 훗대박이 (孝竹박이) (내촌면 소학리)

옛날 이곳에는 하늘이 내신 효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사람은 부모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했으며, 부모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어떻게 해서라도 해드리고 마는 성질이였다.

그런데 그때는 대나무 지팡이를 노인들이 짚는 것이 큰 자랑이요, 유행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대나무가 나지도 않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다. 마음 속으로만 애태우던 그 사람은 노심초사 끝에 하룻밤 꿈 속에서 뒷산 마루턱에 한 그루 대나무가 나 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 과연 꿈 속에서 본 대나무 한 그루가 나 있는지라 이것을 베어 부모님의 지팡이를 만들어 드렸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소문이 널리 퍼져 결국 나라에서 그 효도를 표창하는 孝旗를 하사하였고, 이 기를 대나무가 나 있던 자리에 꽂았다 한다. 이후부터 이 마을을 ‘훗대부락’이라 이르게 되었다.

### 37) 말미 (馬山) (가산면 마산 1리)

말미의 뒷산을 驕山이라 하는데 한양으로 가는 벼슬아치나 驕士들은 이 산출기를 따라 한양을 왕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官員이 한양으로 가던 중 갑자기 말이 죽어 이곳에 묻게 되어 이곳을 말피>‘말미’로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38) 뒷뜰(後坪)(가산면 마산 1리)

이 마을은 원래는 개울 건너편에 있던 마을인데 병자호란 때 도적떼들이 산에 많아 마을사람들이 모두 이곳으로 옮겨 살게 되었다고 한다.

뒷뜰이란 유래는 花山書院이 있는 花峰山 뒤에 있다고 해서 ‘뒷뜰’이라 불렀다 한다.

### 39) 감바위(甘岩)(가산면 감암리)

이곳의 산줄기의 모양이 마치 龍이 꿈틀거리는 모양인데 산줄기가 건너편 王訪山으로 이어져 굽이굽이 감돌아서 이곳을 ‘감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웃마을인 벌말에서 붓물 줄기를 끌기 위해 이 고개의 精氣를 끊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용의 허리가 잘리게 되어 현재 이 마을에서는 큰 인물도 나지 않고 富者 또한 없다는 것이다.

### 40) 당념말(가산면 감암 2리)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이 마을이 처음 생길 때 이 산마루에는 마을의 守護神을 모시는 神堂이 있었다고 한다. 그 너머에 마을이 있다고 하여 ‘당념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41) 두겹바위(蟾岩洞)(가산면 방축 1리)

원래 이 마을에는 書院이 있어 ‘서원말’이라 하였다 한다.

그러나, 근래에는 커다란 두꺼비 모양의 바위가 있다고 하여 ‘두겹바위’ 즉 ‘蟾岩’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42) 거리장(가산면 방축 2리)

현재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곳은 50여 년까지만 해도 5일마다 서는 舊場이 서던 자리라 한다. ‘길거리에 서는 장’이라 해서 이곳을 ‘거리장’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43) 군자정(君子亭)(가산면 방축리)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이곳의 名門大家인 文化柳氏가 司僕寺正이란 벼슬살이를 마지막

으로 이곳에 낙향하여 살게 되었다

이때 소나무 십여 그루를 심었더니 이것이 자라 아름다운 松觀을 이룬지라 이곳에 정자를 짓고 소일하게 되었다. 그러자 공의 조카이며 연산군 때 領議政을 지낸 柳洵이 직접 ‘君子亭’이란 이름을 지어 叔氏의 여생의 안락함을 빌었다. 그후부터 이 마을을 ‘군자정’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44) 가래울(楸谷洞) (가산면 가산 1리)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살기 전에는 가래(楸)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가래나무가 많은 고을’ 가래골이 변하여 ‘가래울’이 되었다는 것이다.

#### 45) 솟다리(鼎橋) (가산면 정교 1리)

이 마을은 벌말·이촌·조촌 세 자연부락이 모여 있는데 이 세 마을은 마치 鼎足같이 鼎立되어 있어 ‘솟발’이 ‘솟다리’로 변천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을 ‘솟다리’라 부르게 되었다.

#### 46) 너배기(廣村) (가산면 금현 1리)

이조 宣祖 때 白沙 李恒福의 조부인 李禮臣이라는 분이 들이 넓고 자손이 많이 번창하라는 뜻으로 이곳을 ‘너배기’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를 근세에 와서 漢字로 ‘廣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가산면의 면사무소가 여기에 맨 먼저 설치된 곳이다.

또 이 마을 뒷산을 禮臣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47) 대대울(竹谷洞) (가산면 금현 3리) ✓

옛날에 강원도 通川에 살던 김씨란 분이 이곳에 옮겨와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싸여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실망했으나 살다 보니 푸른 산 맑은 물이 마음에 들어 이곳에서 14대 후손까지 대를 이어 살고 있다. 그래서 이곳을 ‘대대울’이라 이름하게 되었다 한다.

#### 48) 돌모루(가산면 금현 4리)

약 100년 전 이곳에 牙山 이씨가 처음으로 살게 되었는데 이 마을의 위치가 산을 돌아서 있다

고 해서 ‘돌모루’라고 했다 한다. 지금도 아산 이씨의 후손들이 10여 호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 49) 뚝배기 (가산면 금현 4리)

병자호란 때 이 마을에 胡兵이 주둔했다고 해서 ‘屯兵’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 둔병이란 말이 변해서 ‘뚝배기’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50) 궤돌 (支石) (가산면 금현 5리)

이곳에는 커다란 支石이 있다. 포천군 군내에는 10여 기에 가까운 지석이 산재해 있으며, 이것은 고고학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규모인 높이 2m, 넓이 약 20m 크기의 지석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마을을 ‘支石’이라 부르고 있다.

#### 51) 마치미 (磨峙洞) (가산면 우금 1리) ✓

옛날 부족사회 시대에 이곳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치열한 流血戰 끝에 이곳에서 전쟁을 끝마쳤다고 해서 이곳을 ‘마치미’라고 부르게 되었다.

#### 52) 피기 (槐下洞) (가산면 우금 2리)

이조 中宗 때 영의정을 지낸 문화 유씨 柳洵이란 분이 이곳에 느티나무 세 그루를 심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 마을 이름을 ‘피기’라고 하기도 하고, ‘피하동’이라 하기도 한다.

#### ✓ 53) 솔모루 (松隅里) (소흘면 송우리)

이 마을 서북쪽에 胎峰山이 있어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松林이 무성하였으며, 이 무성한 송림 모퉁이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솔모루’라 한다는 것이다.

#### 54) 술막 (酒幕) (소흘면 송우리)

이곳은 江原·咸鏡 양도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숙박시설과 상업이 매우 번창한 곳이



다. 또한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이태조도 함흥으로부터 이곳으로 거쳐 한양에 도달했다는 유래담도 있다. 이곳을 場이 번성하여 ‘장터’라고도 부른다.

### 55) 곤당골(溪洞) (소흘면 송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220여 년 전 이씨 일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한다. ‘곤당골’이란 胎峰山의 玉女峰이 곱고 아름답다고 해서 이곳을 ‘곤단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56) 태봉산(胎峰山) (소흘면 송우리)

여로부터 이곳은 松林이 무성하고 景觀이 아름답다고 해서 玉女峰이라고도 했는데, 고려 태조 王建이 貞禧공주의 胎를 태워 이것을 매장한 후에 비석을 세우고 해마다 祭를 지냈다 하여 ‘胎峰山’이라고도 한다는 것이다.

### 57) 이삿골(李司果谷) (소흘면 송우리)

司果라는 벼슬을 하던 이씨 성을 가진 이가 이곳에 이주하여 살게 된 이후 이곳을 ‘이사과골’이라 불렀는데 이 말이 줄어서 ‘이삿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58) 산막골(山幕골) (소흘면 송우리)

송우리 가운데서는 작은 마을로 상송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崔氏의 묘를 지키는 산막이 있어서 이곳을 ‘산막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59) 갈피(秋山洞) (소흘면 송우리)

이곳은 농사를 많이 지어 富村이었던 관계로 春窮期를 맞아 남들이 모두 곤궁을 겪는 때라 해도 이 마을 사람들만은 봄(春)도 가을(秋)처럼 식량이 풍족하다고 해서 ‘갈피’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 이 마을을 ‘石門里’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을 서편에 돌을 쌓고 문을 만들었다고 해서 ‘석문동’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 60) 연봉모루(蓮峰隅) (소흘면 송우리)

송우리 京元街道 양편에 발달한 마을로 이성계 장군이 이곳에서 留宿하였는데, 이 御輿의 뜻

으로 ‘聳’자와 ‘小岡’의 뜻인 峰과 모퉁이라는 隅를 떼어 ‘蓮峰隅’가 유래되고 이에서 연꽃(蓮花)의 의미로 변하여 지금은 ‘蓮峰隅’라 쓰게 되었다.

### 61) 이동교리(二東橋里) (소흘면 이동교리)

포천군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는 한내(抱川川)의 抱川綜高 앞에 놓여 있는 이 다리를 ‘두 번째 동교’라 해서 ‘二東橋’라 부른다.

### 62) 용상동(龍床洞) (소흘면 이동교리)

이태조가 함흥으로부터 한양으로 還幸하던 길에, 이곳에서 주무셨다고 해서 이 마을을 ‘임금님의 寢床’이란 뜻으로 ‘용상동’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마을에는 쏘씨가 들어와 정착하더니 지금은 전씨의 외척인 金海 김씨가 들어와 그 후손이 번성하고 있다.

### 63) 부인터(婦人터) (소흘면 이동교리)

이태조가 용상동에서 주무시게 되었을 때 王妃는 이곳에서 주무시게 되었다고 해서 ‘婦人터’라고 한다.

### 64) 물안(水內) (소흘면 이동교리)

지금으로부터 약 420여 년 전에 개설된 마을로 平澤 임씨인 林得義가 임진왜란 때 洪州에서 전공을 세워 선조대왕으로부터 이 땅을 하사받아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임씨의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남쪽 산기슭에서는 溫水가 나왔다는데, 이 마을의 위치가 그 물(水) 안(內) 쪽에 위치하였다고 해서 ‘물안’(水內)이라 부르게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 마을을 ‘무란’(茂蘭)이라 하여 蘭草가 무성했다고 하나 이것은 물안—무란이라 변한 것을 漢字로 표기한 데서 비롯된 이야기일 것으로 보인다.

### 65) 축석령(祝石嶺) (소흘면 이동교리)

포천군 어룡리에 오백주라는 벼슬살이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벼슬살이 중에 부친이 병환으로 위급하다는 급보를 받고 급거 이곳 고개를 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마침 猛虎가 앞을 가로 막으며 덤비려 하자 이 선비는 부친의 急患으로 가는 孝의 길을 가로막는 까닭이 무어나

고 一喝하자 호랑이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집에는 무사히 도착하였으나 山藜와 石溝이 있어야만 한다기에 이 선비는 산 속을 헤매고 있던 중이었는데, 전일의 호랑이가 나타나서 등에 타라는 시늉을 하더라는 것이다. 선비는 호랑이 등에 탔더니 바로 이곳에 신비를 내려 놓았다. 그래서 신비는 이 근처에서 산삼을 구할 수가 있었으며, 이제 다시 석청을 구하고자 할 때 마침 벌 한 마리가 안내하거늘 그 벌을 따라가 바위틈에서 또 石溝을 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고개를 石溝을 얻었다고 해서 ‘祝石嶺’이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66) 무림리 (茂林里) (소홀면 무림리)

옛날에 高氏와 文氏 두 處士가 있어 이곳에 정착하여 후손이 번성하여 ‘무림리’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곳을 分水嶺으로 북쪽으로는 浬川川과 남쪽으로는 中澗川으로 각각 흘러들어가는 물줄기의 分岐點이기도 하다.

### 67) 중말 (中村) (소홀면 무림리)

內樓에 입주했던 高處士와 어렸을 때부터 친근히 지냈던 南平 文處士가 이 마을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자연 경치에 감탄하여 이곳에서 영주하게 되었는데 두 처사는 계속해서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 68) 배골 (梨谷) (소홀면 이곡리)

이 마을의 地形이 배(舟)를 닦았다고 해서 배골(舟谷)로 불리우던 곳이었으나 이조 哲宗이 光陵 세조대왕릉에 참배하러 가던 때, 마침 이곳을 경유하게 되었다. 마침 계절이 꽃피는 때라 배꽃이 만발하여 아름다운 봄경치가 한창 무르익어 철종은 이 마을 이름이 배골(舟谷)이라 하니 그보다는 배(舟)를 배(梨)로 고쳐 배골(梨谷)이라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노라 하여 이후부터는 배골을 ‘이곡’ (梨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철종은 광릉에 참배할 때마다 이곳을 경유하였는데 그 까닭은 임금의 행幸할 수 있어도 묘소에는 행幸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櫛仙里에는 철종의 父君 묘소가 있다.

### 69) 솔개 (松硯) (소홀면 이곡리)

이 마을 앞에 소가 누운 것 같은 고개(硯)가 가로 놓여 있어서 처음에는 臥牛硯이라 불렀으

며, 속칭으로는 쇠현(牛峴)이라 하였다. 그 ‘소’가 다시 ‘솔’로 변하여 ‘솔개’(松峴)로 변했다는 것이다.

### 70) 직동(直洞) (소흘면 직동리)

이 마을은 산간부락이라서 폭이 좁고 길어서 直谷이라 부르다가 直谷洞이 다시 ‘줄어서 ‘직동’(直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 71) 비득재(鳩峴) (소흘면 직동리)

이 마을은 老姑山 기슭에 위치하여 ‘古毛里’로 통하는 長嶺의 모습이 흡사 비둘기(鳩)가 날으는 모습과 같아서 ‘비득재’라 일컫게 되었으며, 한자로는 ‘鳩峴’이라 적는다.

이곳은 지대가 높고 험준하여 그 동안 密陽朴氏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으나 개척이 미진한 바 있다.

### 72) 한성골(霞城洞) (소흘면 고모리)

이 마을 뒤로는 竹葉山이 둘러싸고 있는데 노을(霞)이나 안개(霧)가 마치 성(城)을 둘러싸은 듯이 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을을 ‘하성동’(霞城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이 ‘하성동’이 다시 변한 것이 ‘한성동’이다.

### 73) 고피앞(姑墓前) (소흘면 고모리)

옛날에 老姑山 앞에서 어느 불쌍한 할미(姑)가 외로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할미를 매장한 묘앞에 개설된 마을이라 하여 이곳을 ‘고피앞’이라 하고 또 고묘(姑墓)·고모(古毛)라 쓰기도 한다.

### 74) 갈오리(葛塢里) (소흘면 이가팔리)

애초에는 이 마을 중앙 위치에 연못이 있었는데 온 연못을 덮을 만큼 연꽃이 무성하더니 연(蓮)은 차츰 없어지고 사방 산에 췌(葛)이 무성하여 뚝(塢) 모양을 만들었으므로 이 마을을 ‘갈오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 75) 방아다리(舂橋) (소흘면 이가팔리)

이 마을은 古毛里와 初加八里로 통하는 길목에 춘자(舂字) 모양의 다리가 있어 ‘춘교’(舂橋)

라 하고, 또 속칭으로는 ‘방아다리’라 부르기도 한다.

### 76) 벌말(坪村) (소흘면 이가팔리)

이 마을은 약 300년 전에 강원도 방면으로부터 이주해 온 金海金氏가 개척한 마을로, 마을 전체가 넓은 벌판(原野)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예로부터 이 마을을 ‘벌말’이라 불렀다. 벌말은 벌판마을이란 뜻이다.

### 77) 능말(陵里) (소흘면 초가팔리)

이 마을에는 高敞縣監 趙邦輔의 묘가 있는데 그 규모가 커서 묘라기보다는 차라리 陵과 같다고 해서 이 마을을 ‘능말’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 78) 붉은덕이(紅岸) (소흘면 초가팔리)

이 마을 위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에는 어찌나 나무 한 그루 없던지 붉은 흙이 그대로 露出되어 있어서 이 마을을 ‘붉은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79) 음성말(陰城里) (소흘면 초가팔리)

이 마을에 살던 成天慶의 7대손인 成海應이 陰城縣監을 지낸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마을을 ‘음성현감이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마을 이름을 陰城里라 부르게 되었다.

### 80) 거친봉(茂峰里) (소흘면 무봉리)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220여 년 전부터 蔚山金氏가 개척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尙州李氏가 이주해 와 그들의 후손이 번성하였다.

이곳에는 樹木이 워낙 무성하여 이 마을을 ‘거친봉’(茂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81) 절골(寺谷) (소흘면 무봉리)

조선 宣祖시대에 이 마을 뒷산에 寺刹이 있었다고 하나 현재는 아무런 흔적도 없다. 다만 이 산봉우리에 藥佐峴이란 곳에 石佛 하나가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석불을 松山에 사는 어느 사람이 도지질하게 되었는데 그날 밤 그 사람의 온 가족

들이 모두 심한 복통을 앓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은 다시 그 석불을 도로 반환했다는 전설이 있다.

### 82) 막골(幕골) (소흘면 무봉리)

이 마을은 李成桂 장군이 威興으로부터 還幸할 때 二東橋里 龍床洞에서 주무실 때 후방경계로 이곳에 哨兵들이 막(幕)을 치고 경계하였다고 해서 이곳을 ‘막골’(幕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83) 충목단(忠穆壇) (소흘면 무봉리)

이조 6대 단종에게 충성을 바친 死六臣 가운데 한 분인 兪應孚는 원래는 몹시 가난하여 온갖 고생을 겪으며 어머니를 奉養하던 사람이다.

그 후에 이 마을에서는 유응부를 기리기 위하여 書院을 건립하였던 바 大元군 시절에 폐쇄되고 그 후 儒林들이 힘을 모아 단(壇)을 모으고 그 이름을 ‘忠穆壇’이라 하게 되었다 한다.

### 84) 가래울(槲洞里) (창수면 추동리)

이 마을에는 옛날부터 가래나무(槲木)들이 많아서 ‘가래골’이라 하였는데 이 말이 변하여 ‘가래울’이 되었다 한다.

### 85) 양지밭(陽地밭) (창수면 추동 1리)

가래울 가운데 이 마을이 가장 양지밭라서 ‘양지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86) 두껍바위(蟾岩洞) (창수면 추동 3리)

이 마을 뒤에는 두꺼비 모양의 큰 바위가 있어 이 마을을 예로부터 ‘두껍바위’라 부르고 있다.

### 87) 노루목(창수면 추동 1리)

옛날 이 지역은 山林이 울창하여 온갖 산짐승이 많았었는데 그 가운데도 노루(獐)가 이곳을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목이라 하여 ‘노루목’이라 부르게 되었다.

### 88) 봉림동(鳳林洞) (창수면 주원 1리)

이 마을의 형상이 鳳凰이 숲 속에서 앞(峴)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이 마을을 ‘鳳林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89) 절취미 (창수면 주원 2리)

이 마을에는 고려시대에 절(寺)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근방의 경치가 좋아 나무는 우거지고, 산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을을 ‘절취미’(寺趣味)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90) 동뢰 (東山) (창수면 주원 3리)

이 마을 동쪽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동산이 있으니 이 특징을 잡아 이 마을을 ‘동뢰’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91) 창옥병 (蒼玉屏) (창수면 주원 4리)

이 마을 근방에 병풍처럼 둘러친 절벽 아래 玉水 같은 물이 흐르고 경치가 아름답나 하여 이곳을 ‘蒼玉屏’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92) 장승거리 (창수면 가양 1리)

이곳에는 삼거리가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해도 天下大將軍, 地下女將軍이라 쓴 長旌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장승이 자취를 감추었으나 사람들은 이곳을 아직도 ‘장승거리’라 부른다.

### 93) 박촌말 (朴村말) (창수면 가양 2리)

이조시대에 朴氏 성을 가진 이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한 마을을 이루었으므로 ‘박촌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94) 안촌말 (安村말) (창수면 가양 2리)

조선시대에 安氏 성을 가진 이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정착함으로써 안씨네가 번성하여 한 氏

族마을을 이루었다 하여 ‘안촌말’ (安村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95) 금수정 (金水亭) (창수면 오가리)

이 지역에는 당초에는 牛頭亭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이를 물려받은 강원도 三陟군수를 지낸 楊士彥이 이 정자의 이름을 金水亭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이후부터 이곳을 ‘金水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96) 고소성리 (姑蘇城里) (창수면 고소성리)

이 마을 뒤에는 돌로 쌓은 城이 있는데, 이는 고려시대에 외적을 막기 위하여 쌓은 것이라고 한다. 이 성을 쌓을 때 부녀자들이 힘으로 쌓게 되었다 하여 이 城名을 姑蘇城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97) 배모루 (창수면 고소성리)

이 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永平川을 건너는 나루에 조그마한 배가 있었다고 한다. ‘배모루’란 배를 매어 놓는 船着場이란 뜻이라 한다. 이 나루는 6·25 이후 다리를 놓은 뒤 없어지고 말았다.

### 98) 운산리 (雲山里) (창수면 운산리)

이 마을은 인근 어느 마을보다 지대가 높아서 여름이면 산 중턱에 구름이 걸려 있고, 겨울이면 눈(雪)이 많이 쌓이는 곳이라서 ‘雲山里’ 또는 雪雲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99) 해방촌 (解放村) (신북면 가채 1리)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해방 직후 새로운 주민들이 정착하여 새마을을 이룩하였으니 해방 후에 생겨났다고 해서 이를 ‘解放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100) 최가채리 (崔加采里) (신북면 가채 1리)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 慶州崔氏 문중이 정착하여 한 부락을 이루었으므로 이 마을을 ‘崔加采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01) 오장동(梧章洞) (신북면 가채 1리)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부터 인근에 오동나무를 많이 심어 ‘오동나무 마을’이란 뜻으로 ‘梧章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02) 승방동(僧房洞) (신북면 가채 2리)

이 마을 뒤편에는 산이 있는데 그 중턱에 조그마한 庵子에 女僧 3명이 있어 늘 마을의 安寧과 豐饒를 빌기 위하여 목탁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을 ‘僧房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03) 조가채리(趙加采里) (신북면 가채 2리)

이 마을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溟陽趙氏가 정착하여 조씨 문중이 많다고 해서 ‘趙加采里’라 하며, 현재도 약 30여 세대의 한양 조씨가 살고 있다.

104) 송골(松골) (신북면 가채 2리)

이 마을 뒷산에는 老松들이 무성하여 이를 특색으로 삼아 이 마을을 ‘송골’(松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105) 틀무시(機池) (신북면 기지 1리)

이 마을 양편으로는 산이 에워싸고 있으나 옛날에는 이곳에 연못(池)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을 ‘틀무시’(機池)라고 부르게 되었다 한다.

106) 유촌(柳村) (신북면 유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 文化柳氏가 들어와서 마을을 이룩하였으며, 후손이 번성하였다고 한다.

107) 양촌(楊村) (신북면 양촌)

지금으로부터 약 350년 전 楊氏가 자리를 잡아 한 마을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 마을을 楊村이

라 부른다.

### 108) 향나무배기 (신북면 기지 1리)

이 마을 국도변으로 약 300년 가량 된 큰 향나무(喬木)가 있어 그 특징을 잡아 이 마을을 ‘향나무배기’라 부르고 있다.

### 109) 독곡(獨谷) (신북면 기지 2리)

고려말에 충신인 獨谷 成汝完이 조정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이곳에서 寓居하였다 하여 이 골을 ‘독곡’, 속칭으로는 ‘독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110) 새마을 (신북면 기지 2리)

1978년 주택개량 사업으로 면소재지의 동남쪽 산 중턱에 주택을 신축하여 새로운 마을이 발달하게 되었다. 현재 22가구가 모여 살고 있는 데 이름 그대로의 ‘새마을’(新村)이다.

### 111) 공섬(空島) (신북면 기지 2리)

河川 중간지점에 사람이 살고 있지도 않은 곳에 가지덤불만 우거져 있는데 이곳을 빈 섬, 즉 ‘공섬’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112) 바디울(外吾里) (신북면 기지 2리)

이 마을 뒤편에는 고려 말부터 사기그릇 굽는 가마(窯)가 있었던 바, 함경도 지방의 붓집장수들이 말고개를 넘어 한양으로 사기그릇 장사를 번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길쌈(紡績)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바디(篋)와 사기그릇을 物物交換하였다고 하여 이 마을을 ‘바디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13) 돌모루(石隅洞) (신북면 신평 1리) ✓

抱川川 오른쪽으로 큰 바위가 놓여 있는데 이 마을을 ‘돌의 모퉁이’란 뜻으로 ‘돌모루’라 부르고, 漢字로는 石隅里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114) 궁말(宮말) (신북면 신평 1리)

이 마을에는 조선 16대 인조대왕의 세째 아들인 麟坪大君의 묘가 있다고 하여 이를 ‘궁말’ (宮말)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15) 서원말(書院말) (신북면 신평 2리)

조선 肅宗 14년(1688)에 龍州 趙綱과 溟陰 李德馨을 위하여 세운 龍淵書院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서원말’ (書院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116) 사창말(司倉말) (신북면 신평 2리)

이 마을은 麟坪大君의 묘를 관리하는 인평대군파의 宗中 땅이 상당하여 여기서 해마다 생산되는 양곡이 많아 이를 관리하기 위한 큰 곳집(倉庫)이 있다 하여 이곳을 ‘사창말’ (司倉말)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17) 함바위 (신북면 단세교 2리)

조선시대에 한 처녀가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애인을 따라 投身한 바위가 있으니 지금 셋터 맞은편 산봉우리 위의 거대한 바위가 그것이다. 이 처녀가 恨을 풀고 이승을 하직했다고 해서 이 바위를 ‘한바위’라고 했고, 이 한바위가 변해서 ‘함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118) 셋터 (新基) (신북면 단세교 2리)

지금으로부터 약 80여년 전 溟陽趙氏와 金海金氏가 새로이 정착하여 개척한 마을이란 뜻으로 ‘셋터’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 119) 구사골(신북면 십곡 1리)

이 마을로부터 卍方山의 주봉인 하늘봉까지는 아홉 개의 봉우리가 있다 하여 이를 ‘구사골’이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120) 깊이울(深谷) (신북면 십곡 1리)

왕방산에서 시작되는 능선의 계곡이 깊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골짜기라 하여 이 마을을 ‘깊이

골'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깊이골'이 변하여 '깊이울'이 되었다고 한다. 또 능선의 위와 아래를 갈라 上深谷, 下深谷이라 한다.

### 121) 자릿말(신북면 계류 1리)

이 마을 뒷산 중턱에 논자리가 있는 바, 그 논자리 아래쪽에 정착한 마을이라 해서 이 마을을 '자릿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 122) 벌말(신북면 십곡리) ✓

이 마을은 넓은 벌판에 발달한 마을이란 뜻으로 '벌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123) 양지말(陽地村)(신북면 계류 2리)

산 중턱에 양지바른 곳에 위치한 마을이라 해서 '양지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 124) 변촌말(卞村)(신북면 계류 2리)

양지말 건너편에 자리잡은 이 마을은 密陽卞氏가 개척하여 정착한 마을이라 하여 '변촌말'(卞村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현재도 10여 세대나 변씨가 살고 있다.

### 125) 방축골(防築)(신북면 계류 2리)

고려 말엽에 이미 이곳에 저수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큰 防築을 축조하여 울창한 森林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큰 방축이 있다 하여 이 마을을 '방축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 붕괴되어 방축은 없어지고 저수지 바닥은 논이 되었다.

### 126) 텃골(신북면 고일 2리)

고려 말엽 조정의 혼란을 피하여 이곳으로 낙향한 成汝完이 자리를 잡고 촌락을 이루었다고 하여 이곳을 '텃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127) 삼성당리(三星堂里)(신북면 삼성당 1리)

삼성당리 1, 2리 중간 지점에 유교사상의 대표적 인물인 孔子, 孟子, 朱子 세 聖人을 모시는

祭堂이 있으며, 매년 음력 10월 13일 정오에는 이곳에서 마을 유지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齋를 올렸다. 따라서 이 마을을 세 성인을 모셨다고 해서 ‘三聖堂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또 고개 마루턱의 북동쪽을 內三聖, 남서쪽을 外三聖이라고 한다.

128) 무루산(신북면 삼성당 1리) ✓

옛날 중국에 무루산이란 산이 있고 그 기슭에는 12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삼성당 1리에는 12마을이 있어 이를 본따서 ‘무루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29) 맷돌안(신북면 삼성당 1리)

이 마을 洞口에 마치 맷돌과 같이 생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위에 나무까지 나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나무는 없으나 맷돌같이 생긴 바위가 있다고 해서 이 마을을 ‘맷돌안’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30) 삼정리(三政里)(신북면 삼정리) ✱

옛날 이곳에는 우물이 셋이 있어 三井里라 했으나 요즘에는 ‘三政里’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고도 하며 또는 옛날에 세 정승이 살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라고도 한다.

131) 칠월이(葛月)(신북면 갈월 1리)

높은 산간지대에 자리잡은 이 마을에는 땅이 비옥하여 葛(葛) 덩굴이 어우러진다. 그래서 이 마을을 ‘칠월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말이 다시 변하여 ‘칠월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132) 가마골(釜谷洞)(신북면 갈월 1리)

이곳은 산간마을로 대장장이들이 ‘가마솥을 만들던 곳’이라 해서 이 마을을 ‘가마골’이라 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의 얘기로는 옛날부터 이곳에는 참나무가 우거져 있는데, 그 우거진 참나무로 숯(炭)을 굽는 숯가마(炭釜)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을 ‘가마골’(釜谷)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전설도 있다.

133) 지동(紙洞) (신북면 금동 2리) ✎

옛날에 탁나무(楮)를 이용하여 韓紙를 만들던 곳이라 해서 이 마을을 '紙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34) 새청이(射亭里) (신북면 덕둔리) ✎

옛날에 이곳에서 閑良들이 모여 활을 쏘는 곳인 射亭이 있어 '사정'이라 부르던 것이 음이 변하여 '새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35) 능원(陵園) (영중면 양문리)

이 마을 뒤에는 선조대왕의 12子인 仁興君의 묘가 있어서 이 마을을 '능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136) 뒷개울(後浦) (영풍면 양문리)

仁興君 묘 뒤로는 큰 개울인 永平川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개울 옆에 발달한 부락이라 하여 이 마을을 '뒷개울'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37) 나분들(廣坪) (영중면 양문리)

이 마을은 넓은 들판을 끼고 발달한 마을인데 '넓은들'이 변하여 '나분들'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38) 삼달밭(三峴) (영중면 양문리)

이곳은 조그마한 교통의 要衝地이다. 이곳을 통하여 능원부락·뒷개울·궁현부락 세 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이곳을 '삼달밭'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39) 증꼐(宮峴) (영중면 금주리)

옛날부터 이곳에는 웅기굽는 증쟁이(甌匠)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을 축칭으

로 ‘증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140) 탁밭(楮田)(영중면 금주리)

이 마을에서는 韓紙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인 탁나무 밭이 많았는데 ‘탁나무밭이 많은 마을’이란 뜻으로 ‘탁밭’(楮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141) 백로주(白鷺洲)(영중면 거사리)

이 마을 앞으로 抱川川이 흐르고 있고 또 거기에는 다리(橋)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집채만한 바위의 생김새가 꼭 白鷺같이 생겼다. 그래서 그 백로같이 생긴 바위 앞에 있는 마을이라 해서 ‘白鷺洲’라고 한다.

#### 142) 거시울(居士洞)(영중면 거사리)

조선시대 유명한 黃崑 정승의 후손인 黃廷謙 관서가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해서 이 마을을 ‘居士里’라 하고, 속칭으로는 거시울이라 한다.

#### 143) 은젯말(隱峴)(영중면 거사리)

조선 선조대의 西厓 柳成龍의 후손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가 이 마을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을 ‘숨은재’라는 뜻으로 ‘은젯말’이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144) 새장터(新場)(영중면 성동리)

조선시대에 양반들의 권세에 쫓긴 상인들이 이곳에 모여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장(場)이 선다’고 해서 이곳을 ‘새장터’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145) 잣골(柏橋)(영중면 성동리)

이 마을 뒤편에는 城이 있는데 이는 泰封國을 건설했던 古嚮 왕이 이 성을 쌓은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을 ‘젯골’(城洞)이라 했는데 이 말이 변하여 ‘잣골’로 되었고, 이를 다시 漢字로 옮길 때 잣(柏)의 의미로 변한 것이다.

146) 느릅쟁이 (楡亭) (영중면 성동리)

옛날에 이곳에는 커다란 느릅나무가 亭子를 이뤄 선비들이 이곳에서 風流를 즐겼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을 ‘느릅쟁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47) 파주골 (坡州洞) (영중면 성동리)

이곳은 옛날에 弓裔 왕이 싸움에 패하여 도망친 곳이라 해서 敗走洞이라 하던 것이 ‘파주골’의 음이 변하여 ‘파주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148) 대살리 (大寺里) (영중면 영평리)

이 마을 근처에 큰절(大寺)이 있었다고 해서 이 마을을 ‘大寺里’라 하고 또 이 말이 변해서 ‘대살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49) 곰고개 (영중면 양문 1리)

옛날에 어느 갑부가 이 고개 마루에 墓를 썼는데 그 묘의 생김새가 꼭 곰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 고개 이름까지도 ‘곰고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날 그 후손이 省墓하러 왔다가 호랑이에게 禍를 당한 후부터는 그 후손의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150) 슷터 (禾垌) (일동면 화대리)

李成桂 장군이 威興 땅에 오고 가면서 이곳에서 쉬어갔다고 해서 ‘윈터’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 말이 변해서 ‘स्थ्य’가 되었다고 한다.

151) 윈부리 (麥邱) (일동면 화대 3리)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보리를 많이 심었는데 ‘은통 보리만 심는다’는 뜻으로 ‘윈보리’라 하였는데 이 말이 변하여 ‘윈부리’가 되었다고 한다.

152) 섯터 (新基) (일동면 사직 1리)

이성계 장군이 함흥에 있을 때 差使들이 왕래하면서 마시던 샘물이 있어 애초에는 이곳을 ‘샘



터(泉基)라 불렀다 한다. 그 후에 샘터가 변하여 '셋터'가 되었다. 지금도 샘터가 食水로 쓰이기도 한다.

### 153) 뱀말(百忍谷)(일동면 사직동)

옛날에 이곳에는 머리로부터 일곱과 온몸이 모두 하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이곳을 '百人洞'이라 부르다가 배안말, '뱀말'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154) 산내지(山內地)(일동면 수입 4리)

1909년 日本軍이 침략하여 우리나라를 점령하던 때도 이곳에는 일본군이 한 명도 들어온 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을 '산내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55) 개미마을(이동면 장암 1리)

1974년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독립가옥 15동 30가구가 집단 입주하였는 바, 당시에 군수가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며 살라는 뜻으로 '개미마을'이란 마을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 156) 광산골(鑛山)(이동면 장암 1리)

왜정 때 이곳에서는 金鑛과 螢石鑛이 생산되었으며, 최근 1960년까지도 형석광은 생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우라늄광이 埋藏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술진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다.

### 157) 늪바위(이동면 장암 1리)

이곳에는 크고 넓은 이른바 너래바위가 있으며, 이 바위에서 국수장을 말 때 쓰는 석이(石葦) 버섯이 나고 있다. 이 바위를 예로부터 '늪바위'라 불러 왔다.

### 158) 귀박골(이동면 장암 1리)

이곳에는 修願寺가 있으며, 계곡의 경치가 아름다와 여름이면 근방 주민들이 많이 놀러오는 곳이다.

### 159) 매바위(鷹岩)(이동면 장암 2리)

이 마을 뒷산에 꼭 매(鷹)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어 이 바위를 '매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 160) 덕재 (德재) (이동면 장암 3리)

안덕재와 바깥덕재로 구분되는데, 이곳은 넓은 盆地로 옛날부터 落鄕한 선비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으로 지금은 군사격장으로 쓰이고 있다.

### 161) 여우고개 (狐峴洞) (이동면 장암 3리)

弓裔의 군사가 王建 군사에게 패하여 鳴驛山에 피난하고 있을 때 왕건 군사들이 궁에 군사들을 여우처럼 엿보았다고 해고 ‘여우고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62) 십방이 (僧房洞) (이동면 장암 3리)

白雲洞에 있던 內院寺와 善積寺를 지을 때 粘村에 있는 기와공장으로부터 주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기와를 릴레이식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달하여 기와를 옮겼다고 하는데 이때 승려들이 자던 곳이라 해서 이곳을 ‘僧房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63) 마당바위 (場岩) (이동면 장암 4리)

이 마을 河川가에 약 50평 정도의 넓은 바위가 있어 이 바위에서 打作도 하고 쉬기도 하였는데 이 바위로 인하여 그 이름을 ‘마당바위’라 하게 되었다 한다.

### 164) 배선골 (拜仙洞) (이동면 장암 5리)

이 마을에는 옛날에 富豪들이 살았으며, 이곳에서 선비들이 禮法을 익히던 곳이라 하여 ‘배선골’이라 한다는 것이다.

### 165) 농바위 (農岩) (이동면 장암 5리)

朝鮮 孝宗 때 학자인 農岩 金昌協이 살던 곳이라 하여 그 雅號 農岩을 다시 ‘농바위’라 일컬어 마을 이름이 되었다 한다.

### 166) 도리돌 (桃李洞) (이동면 도평 1리)

옛날에는 이곳에 복숭아나무(桃)와 오얏나무(李)들이 많아서 봄이면 壯觀을 이루었다고 하며

또 옛날 어느 사람이 이 마을을 둘러 놓고 갔다고 해서 ‘도리돌’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67) 약사(藥寺)(이동면 도평 3리)

신라말에 創建된 藥寺라는 절이 있었다고 해서 이곳을 ‘藥寺’라고 한다. 內藥寺와 外藥寺로 나뉘어진다.

### 168) 약수터(藥水)(이동면 도평 3리)

의약사에서는 내약사로 들어가는 입구에 약 8명 정도의 동굴이 있는데, 이 굴에서 약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을 ‘약수터’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69) 점말(粘村)(이동면 도평 3리)

옛날부터 기와를 굽던 곳이라 해서 이곳을 ‘점촌’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점촌의 ‘점’이란 기와 굽는 데 원료가 되는 찰흙(粘)을 의미한다.

### 170) 도마치(道馬峙)(이동면 도평 4리)

泰封國의 궁예가 왕건과의 鳴磔山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할 때 이곳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산길이 너무 험난하여 이곳에서 말을 내려 끌며 갔다고 해서 이곳을 ‘도마치’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71) 구정동(龜汀洞)(이동면 도평 4리)

都坪里 입구를 말하며, 험한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로부터 이곳을 ‘龜汀洞’이라 하며, 이외에도 ‘九停川’ 또는 ‘九政遷’이라 부르기도 한다.

### 172) 돌개벌(都浦)(이동면 연곡 1리)

이곳은 바닥이 돌바닥밭이고 또 잡초만 우거진 미개척지로 荒蕪地라서 ‘돌개벌’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173) 심재(心재)(이동면 연곡 1리)

이 마을은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마을 형태가 길어서 ‘심재’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174) 골논(畚洞) (이동면 연곡 2리)

마을 앞에 있는 논(畚)이 골논이라서 이 마을을 옛부터 ‘골논’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75) 만가대(萬家垌) (이동면 연곡 3리)

1만 채의 집이 들어설 수 있는 큰 마을이란 뜻으로 ‘萬家垌’라고 하는데 이를 滿家垌 또는 晩家垌라고 쓰기도 한다.

176) 줄라이산(走岩山・行山) (이동면 연곡 3리)

높이는 낮으나 珪石鑛으로 유명하였으며 지금은 폐광되었다. ‘줄라이’산이란 뜻은 낮기는 하나 험한 산이 줄줄이 이어졌다는 뜻이다.

177) 제비울(燕谷) (이동면 연곡 4리)

이 마을 앞으로는 道屯山이 가로 놓여 있고 뒤로는 走岩山이 막혀 있어 부락의 형태가 제비 등지 모양 같다고 해서 ‘제비울’(燕谷)이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78) 불당골(佛堂) (이동면 연곡 4리)

이 마을에는 옛날에 庵子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도 마을 이름을 ‘불당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179) 장좌동(長佐洞) (이동면 연곡 4리)

이 마을에는 조(粟)가 많이 생산되는데 그 조를 千石씩이나 농사짓는 큰 富者가 있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부자를 長者라 하였으며, 이 말이 변하여 ‘長佐洞’이 되었다는 것이다.

180) 속개울(이동면 연곡 4리)

이 마을에는 항상 마르지 않는 샘이 있으나 물이 흐르지 않고 땅 속으로만 스며서 흐른다고 해서 그 이름을 ‘속으로만 흐르는 물’이란 뜻으로 ‘속개울’이라 한다.

181) 개암밭골(榛田洞)(이동면 연곡 4리)

이 마을 뒤에는 개암나무(榛)가 유난히 많아서 마치 개암나무의 밭을 이문 듯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182) 뒫둔지(後屯地)(이동면 연곡 4리)

별판 가운데 수목이 우거진 숲이 있는데 그 땅 속에는 미륵(彌勒)이 묻혀 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런데 이 미륵을 파서 세우려 하였으나 마을의 古老들이 이것을 파세우면 마을 아낙네들이 바람이 난다고 만류하여 발굴작업이 중단되고 말았다.

183) 먼두둑(遠坪)(이동면 연곡 5리)

이 마을에서 뚝이 멀리 보인다고 해서 '먼두둑'이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184) 승진마을(勝進)(이동면 노곡 1리)

이곳에 5군단이 주둔한 이후, 그 부대명을 따서 '승진(勝進)마을'이라 일컫게 되었다.

185) 갈골(蘆谷)(이동면 노곡 1리)

이 마을에는 갈대(蘆)가 많다고 해서 '갈골'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이곳은 洞陰縣과 永平縣이 폐합된 읍이란 뜻으로 巨邑으로 불리우다가 '간골'로 불리웠으며, 이것이 다시 변하여 '갈골'이 되었다고도 한다.

186) 장승백이(이동면 노곡 1리)

옛날에 洞陰縣이 갈골에 있을 때 그 洞에 장승을 세웠는데 지금도 이 마을을 '장승이 박혀 있던 곳'이란 뜻으로 '장승백이'라 한다. 그 장승은 6·25 때 소실되고 말았다.

187) 생계골(鄉校)(이동면 노곡 1리)

옛날에는 이 마을에 鄉校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애초에 이 마을을 '향교골'이라 부르던

것을 이 말이 변하여 ‘생계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188) 생이(松茸)(이동면 노곡 2리)

낭유고개(狼踰) 오른쪽으로 있는 산 이름으로 작은생이, 큰생이가 있다. 생이란 뜻은 옛날에 이곳에서는 ‘송이’ 버섯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송이’에서 ‘생이’로 변해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89) 낭유리(狼踰里)(이동면 노곡 2리)

이 마을 뒷산에 이리(狼)의 발자국이 바위에 그대로 나 있는데 이 마을을 ‘이리(狼)가 넘었다(踰)’ 해서 ‘낭유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190) 개무지(이동면 노곡 2리)

노곡(蘆谷)에 있는 큰 개울을 이르는 말로 이곳에는 모래무지가 많았다고 한다.

### 191) 평촌(平村)(이동면 노곡 2리)

편편한 벌판이 있는 마을이란 뜻으로 ‘平村’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192) 샘뱀이(沓洞)(이동면 노곡 3리)

이 마을에는 골논이 많은데 그 논들이 샘(泉)이 나서 이곳을 ‘샘뱀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샘뱀이란 뜻은 샘(泉) + 밤이(夜伊)로 된 말이다. ‘밤이’는 논을 셀 때 쓰는 단위이다.

### 193) 신우골(新興洞)(관인면 중 1리)

1916년 釜谷里에서 이곳 中里로 面事務所가 이전된 이후에 마을이 새로(新) 일어나라(興)는 뜻으로 ‘新興洞’이라 하고, 속명으로는 ‘신우골’이라고 부른다.

### 194) 데룡골(蛟洞)(관인면 중 1리)

이곳은 옛날에 용이 修道를 하여 昇天한 곳이라고 하며, 또 도룡농(蛟)이 많이 서식하고 있

어 도통농골이라 하였는데 도통농골이 도통골, 이것이 다시 변한 것이 ‘데통골’로 변하였다.

### 195) 십재(深洞)(관인면 중 1리)

이곳은 사방 어느 곳을 보아도 언덕은 높고 골은 깊어 ‘深洞’이라 하였으며, 속칭으로는 ‘십재’라 부른다.

### 196) 약수동(藥水洞)(관인면 중 2리)

이곳에는 옛날부터 약수(藥水)가 유명한 곳인데, 지금은 양어장으로 변하여 있다.

### 197) 할미재고개(관인면 중 2리)

길이 꼬불꼬불하고 넘기 힘든 고개인데, 이를 꼬부랑 껌껌하는 할머니에 比喩하여 이렇게 불렀다 한다.

### 198) 늘거리(板巨洞)(관인면 중 2리)

1920년경 일제시대에 入山廣告板을 크게 세웠던 자리에 발달한 마을이라고 해서 ‘늘거리’(板巨里)라 하였는데, 이를 한자로 고쳐 쓰게 되어 ‘板巨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199) 문바위(文岩)(관인면 중 2리)

어느 절(寺)의 僧侶가 시주를 받으러 이 마을을 돌고 있을 때, 어디에선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보리 쟁으러 갔다’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 중은 피이히 여겨 둘러보니 물 속에서 커다란 잉어(鯉)가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중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잉어를 잡아먹지 말도록 권유하였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이 권유를 듣지 않고 그대로 그 잉어를 잡아먹고 말았다. 그랬더니, 그 마을이 마치 익다가 썩어 버리는 문배처럼 차츰차츰 망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 마을을 ‘문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한 전설에 의하면, 어느 바위 밑에서도 공부할 수 있다 하여 ‘문바위’라 부르고 이를 ‘文岩’이라 漢字로 쓰기도 한다.

### 200) 보리골(麥洞)(관인면 삼울리)

이 마을은 관인면 일대에서는 보리(麥)가 가장 잘 된다 하여 이 마을을 ‘보리골’이라 하고

漢字로는 ‘麥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01) 북바위 (北岩) (관인면 삼울리)

옛날에는 ‘미아리 모퉁이’라 불렀는데 바위가 북쪽으로 향해서 있다 하여 ‘북바위’라 부르게 되었다 하며, 또 한 설에 의하면 바위가 북(鼓)처럼 생겼다고 해서 북바위라 부르게 되었다고도 한다.

### 202) 하랑동 (河浪洞) (관인면 삼울리)

이곳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개울로 인하여 ‘河浪洞’이라 불렀으며, 후에는 여기를 銀河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 203) 밤나무골 (栗木洞) (관인면 삼울리)

이곳에는 지대가 높고 險峻하며 골짜기마다 밤나무를 많이 재배하여 ‘밤나무골’이라 불렀으며, 요즘은 한자로 ‘栗木洞’이라 부른다.

### 204) 장수동 (長水洞) (관인면 삼울리)

물가에 집을 짓고 사는 이 마을은 물이 끊임없이 길게 흐른다 하여 ‘長水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205) 마감동 (梧琴洞) (관인면 초과 1리)

이 마을은 馬氏가 개척하여 그 이름을 ‘마감동’이라 하였다고 한다.

### 206) 오금동 (烏金洞) (관인면 초과 2리)

이 마을 근처에서 鑛山을 처음 개척시에 까만(烏) 금(金)이 나왔다고 해서 ‘烏金洞’이라 불렀다 하며, 다른 설로는 이곳에 藥水가 있었는데 여름에도 그 물에 발을 담그면 오금이 시려오도록 물이 차다고 해서 ‘오금동’이라 했다는 것이다.

### 207) 으름물 (관인면 초과 2리)

깊은 산에 蔓生, 즉 덩굴로 된 으름이 많이 나는 곳이며, 또 여기에 우물(井)이 큰 것이 있



다고 해서 '으름우물'이라 한 것이어서 '으름물'이라 하게 되었다고 한다.

### 208) 남창동(南倉洞) (관인면 초과 2리)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 어려우나 弓窩 왕이 軍糧米를 저장하기 위하여 큰 창고를 지었다 한다. 실체는 '南倉' 뿐 아니라 北倉, 西倉도 있었다고 한다.

### 209) 가계동(可子洞) (관인면 초과 2리)

이 마을의 山勢를 따서 '가계골'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이름이 상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可子洞'이라 하였으나 현재는 그대로 '가계동'이라 더 많이 쓰이고 있다.

### 210) 숯골(炭洞) (관인면 탄동 2리)

이 마을에서는 숯가마(炭窯)가 많아서 '숯골'이라 하고, 또는 땅에서 土炭이 나온다고 해서 '탄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 211) 느릅실(榆谷) (관인면 탄동 2리)

이 마을에는 느릅나무가 많아서 '느릅실'이라 하고, 한자로는 '榆谷'이라 쓰게 되었다고 한다.

### 212) 봉우제(烽儀洞) (관인면 탄동 2리)

조선시대에 國難을 당했을 때는 烽火를 올려 급한 상황을 전달하던 곳이라 하여 '烽儀洞'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13) 인정동(仁井洞) (관인면 냉정 1리)

이 마을에는 마을 주위가 산으로 모두 막혀 매달린 모양(形)이라 하여 인정동이란 설이 있으며, 또 어떤 설로는 人情이 많아 '인정동'이라고도 하였다는 전설도 있다.

### 214) 오리골(梧利) (관인면 냉정리)

이 마을에서는 어느 쪽 마을로 가든지 그 거리가 5리라 하여 마을 이름을 '오리'라 하고, 또

오동나무가 많다고 해서 ‘오리골’(梧里)이라 했다는 전설도 있다.

### 215) 찬우물(冷井)(관인면 냉정 2리)

어느 곳을 파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食水가 나올 뿐 아니라, 그 물이 매우 차고 시원하다고 해서 그 이름을 ‘찬우물’(冷井)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16) 용담(龍潭)(관인면 냉정 2리)

이 마을에는 큰 연못이 있는데 이 못 속의 龍이 昇天하기 위하여 道를 뚫던 곳이라고 한다. 지금은 연못은 있으나 물이 말라 옛 흔적만 보여 주고 있다.

### 217) 능촌동(陵村洞)(관인면 사정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이곳에 왕릉의 墓所가 있던 곳이라 해서 마을 이름을 ‘능촌동’이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그 자리를 찾을 수 없다.

### 218) 뗏마루(관인면 사정리)

林木을 운반하기 위하여 뗏목을 만들어 띄운 곳이라 해서 이곳을 ‘뗏마루’라 부르고 있다.

### 219) 운천(雲川)(영북면 운천리)

위낙 물이 맑아서 이 맑은 물에 구름이 비치면 마치 구름이 물 속에 잠긴 듯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구름내’라 하고, 이를 한자로 ‘雲川’이라 하였다 한다.

### 220) 각흘봉(角屹峰)(영북면 운천리)

운천리 동쪽에 우뚝 솟은 해발 466m의 높은 산으로 봉우리가 뿔(角)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를 ‘角屹峰’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21) 붉은데기(赤峴洞)(영북면 운천 1리)

이곳의 흙은 붉은색이 나서 ‘붉은데기’라 하고, 漢字로는 ‘赤峴洞’이라 부르고 있다.

### 222) 골안(保育院洞)(영북면 운천 5리)

이 마을은 골짜기 안에 있다고 해서 옛부터 ‘골안’이라 불러 왔는데 요즘에는 이곳에 보화보육원(1958.12.21. 설치)이 설치된 이후 흔히 ‘보육원동’이라 부른다.

### 223) 바모루(岩隅洞)(영북면 운천 5리)

이 마을 입구에는 큰 바위가 있고, 이 바위 밑으로 물이 흘러서 이 물로 물레방아를 돌렸기 때문에 애초에는 ‘방아모루’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음이 변하여 ‘바모루’가 되고 다시 漢字로는 ‘岩隅’라 부르기도 한다.

### 224) 점말(店말)(영북면 운천 5리)

이곳에는 옛날에 가마솥, 농기구, 연장을 파는 무쇠점과 독, 향아리 등을 파는 독점이 있었다고 하여 이 마을에는 가게(店)가 많다고 해서 ‘점말’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25) 오호(五號)(영북면 운천 4리)

1922년에 山井里에 저수지를 만들면서 이 저수지 물을 받아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水路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을 짓게 되었다. 이 마을은 수로의 五號支線을 따라 발달한 마을이란 뜻이 된다.

### 226) 육호(六號)(영북면 자일 2리)

이 마을은 산정호수의 6호지선을 따라 발달한 마을이라서 ‘六號’라 부르게 되었다.

### 227) 팔호(八號)(영북면 자일 2리)

이 마을은 산정호수의 8호지선을 따라 발달한 마을이라서 ‘팔호’라 부르게 되었다.

### 228) 벼가리소(禾積)(영북면 자일 2리)

절벽이 아름답고 江心이 깊어 아름다운 風光이 壯觀을 이룬 곳으로 江 가운데 있는 바위가

마치 벼짚(禾稿)을 쌓아 놓은 것 같다고 해서 ‘벳가리소’(沼)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禾積’이라 부른다.

여기에 옛부터 전해지는 전설이 있으니 어느 해 몹시 날씨가 가물어 이 벳가리소를 바라보며 어느 농부가 탄식을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물 속에서 이무기가 머리를 번쩍 들면서 꼬리를 치며 하늘로 昇天하더라는 것이다. 이 광경을 보던 농부는 매우 놀랐으나 곧 비가 내려 그 해는 豊年이 들었다고 한다.

### 229) 신촌(新村) (영북면 자일 2리)

원래 이 마을의 土質은 척박하여 농사짓기에 부적절하나 1930년 이래 주민이 정착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30여 호나 살고 있는 마을이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해서 ‘新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 230) 솔둥지(松井) (영북면 자일 3리)

이 마을 뒤로는 蒼蒼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이것이 마치 솔숲(松林) 속에 우물(井) 같다고 해서 ‘솔우물’ 즉 ‘송정’이라 하고, 또는 ‘소나무 둥지’ 같다고 해서 ‘솔둥지’라 하기도 한다.

### 231) 승지골(承旨골) (영북면 자일 4리)

옛날에 承旨를 지낸 사람이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해서 ‘승지골’이라 불렀다고 하며, 혹은 이 마을을 새터(新垔)라 부르기도 한다.

### 232) 문교동(文橋洞) (영북면 문암리)

文岩里에서 雲川里로 연결되는 다리(橋)가 있다고 해서 이 마을을 ‘文橋里’라 부르게 된 것이라 하겠다.

### 233) 방축말(영북면 문암리)

마을을 감싸고 있는 큰 防禦이 있다고 해서 이 마을을 ‘방축말’이라 하던 것이 ‘방축말’로 변했다고 한다. 또 샘터(泉)가 있다고 해서 ‘샘터’라 부르기도 한다.

### 234) 참전비마을(參戰碑村)(영북면 문암리)

이 마을에는 6·25 때 參戰하였다가 1972년에 철수한 泰國軍을 기념하기 위하여 1974년에 紀念碑를 세웠는데 이후부터 이 마을을 ‘참전비마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35) 야미리(夜味里)(영북면 야미리)

옛날 이곳에는 솔숲(松林)이 하도 울창해서 밤이면 도둑이 들끓었다 한다. 그래서 도둑이 밤이면 재미를 본다고 해서 이곳을 ‘夜味里’라 한다고 한다.

### 236) 되내지고개(영북면 야미리)

이 고개는 夜味里와 文岩里를 잇는 고개로 옛날에 산도둑들이 ‘돈내지’라고 行人에게 말하였다고 해서 ‘돈내지’고개라 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도내지’로 변하고, 다시 ‘되내지’로 바뀌었다고 한다.

### 237) 봉화골(烽火)(영북면 야미리)

이 마을 뒷산에 烽火臺가 있어서 이곳을 ‘봉화골’이라 불렀다 한다. 國難이 있을 때는 중군 봉수대에서 信號를 받아 성동리 봉수대로 연락하는 중간 지점의 봉화대가 된다.

### 238) 쇧골(金谷)(영북면 야미리)

이 마을은 예전에 황룡광업소가 있던 곳으로 鐵鑛이 생산되는 곳이라 해서 이곳을 ‘쇧골’(金谷)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39) 횃가마골(灰釜)(영북면 야미리)

예전에 이곳에서 生灰가 생산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을 ‘횃가마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40) 울음산(鳴聲山)(영북면 산정리)

궁예가 부하이던 王姓에게 반격을 받아 크게 결전을 벌이다가 이곳에서 크게 패하고 도망할

때 울었다고 한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곳을 鳴聲山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41) 항서받골(降書)(영북면 산정리)

궁예와 왕건의 決戰에서 궁예가 왕건에게 항복하는 降書를 받은 곳이라 해서 ‘항서받은 골’이란 뜻으로 ‘항서받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242) 야전골(野戰)(영북면 산정리)

궁예가 왕건에게 패하여 鐵原 북방으로 敗走하여 갈 때, 이곳에서 왕건 군사로부터 急襲을 받아 싸우게 된 곳이라 해서 이곳을 ‘野戰골’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243) 가는골(敗走골)(영북면 산정리)

왕건 군사에게 패한 궁예 군사가 이 골을 경유하여 철원 金鶴山으로 도망하였다고 하여 이곳을 ‘패주골’이니 ‘가는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44) 여우고개(영북면 산정리)

궁예 군사와 왕건 군사가 이 고개에서 對峙하여 있을 때 양쪽 군사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여우(狐)처럼 엿보았다고 해서 ‘여우고개’라 일컫는다 한다.

### 245) 망봉(望峰)(영북면 산정리)

궁예가 지금의 山井湖水 좌우로 적의 動靜을 살피는 望遠臺를 높이 쌓아놓고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며,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때 왕건을 앞세운 혁명파인 申崇謙 등에 의하여 크게 패하여 운명의 끝을 마치게 되었다.

### 246) 대회산리(大回山里)(영북면 대회산리)

적어도 해발 600 내지 700m 높이의 산들로 둘러싸였다고 해서 이곳을 ‘大回山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47) 신선봉(神仙峰)(영북면 대회산리)

이 산마루는 평평한 盆地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 하늘에서 神仙들이 자주 내려와서 놀다 갔다고 한다. 또 이곳을 쥐멍굴이 많아서 곰(熊)이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고 해서 '곰멍굴' 이라고도 하고 또 '불부산' 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였다.

### 248) 용막골(龍馬洞)(영북면 대회산리)

銀井山 뒤편에 있는 이 골짜기에 옛날에 龍馬가 나왔다 하여 이곳을 '용마골' 또는 '용막골' 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49) 비들기낭(영북면 대회산리)

大回山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이곳을 통과하여 淡灘江과 합류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폭포수를 이루며, 이 폭포수 뒤로 洞窟이 있어 이곳에 백비들이 새끼를 까며 棲息했다고 해서 이곳을 '비들기낭' 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의 '낭'은 '낭떠러지'의 뜻이다.

### 250) 절골(영북면 대회산리)

銀井山 서쪽 기슭에 자리잡은 골짜기에 600명이나 되는 큰 규모의 절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절 중이 마을에 내려오면 그 중을 마을 사람들이 못살게 굴고 때려주고 하였다고 한다. 그 가운데도 金海金氏 한 사람이 몹시 나쁘게 굴어 화가 난 중이 김해 김씨 문중의 묘에다 쇠막대기를 꽂고 3년 안에 집안이 망할 것이라 豫言을 하였는데, 그 김해 김씨네는 3년 안에 敗家하였고, 그 중은 어디론가 도망쳤다고 한다. 화가 난 김씨네 문중에서는 그 절을 찾아가서 모두 부수어 버렸다고 한다.

### 251) 밤골고개(영북면 대회산리)

숲이 울창하고 길이 좁아서 낮에도 밤같이 캄캄하다고 해서 이 고개를 '밤골고개'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252) 소회산리(小回山里)(영북면 소회산리)

이 마을도 작은 산으로 마을이 온통 둘러싸였다고 해서 마을 이름을 '소회산리'라 부르게 되

었다는 것이다.

### 253) 촌말(영북면 소회산리)

해방 전만 해도 약 150여 호가 있었던 마을인데 조금 외진 데 있다고 ‘촌말’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254) 뒫골(영북면 소회산리)

이 마을의 위치가 소회산리 뒤편에 있다고 해서 ‘뒫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55) 은정산(銀井山)(영북면 소회산리)

원래 이름은 金井山이었는데 이 산에서 銀이 생산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은정산’이라 부르게 된 것이요, 銀鑛의 흔적이 남아 있다.

### 256) 동자리고개(영북면 소회산리)

소회산리와 문암리의 경계를 이루는 고개를 말하는데, 소회산리 동쪽에 있다고 해서 ‘동자리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 이 산 마루턱에는 城隍堂이 있어 ‘城隍堂’ 또는 ‘서낭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257) 등룡폭포(登龍瀑布)(영북면 산정리)

山井湖水의 水源地인 이곳은 山水가 秀麗하고 奇岩絶壁 위로 폭포가 壯觀을 이루고 있는데, 용이 이 폭포수의 물안개를 따라 하늘로 登天하였다는 傳說이 있어 ‘등룡폭포’라 이른다.

### 258) 비선폭포(飛仙瀑布)(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상단부에 넓은 岩盤이 있어 그 위에 떨어지는 폭포수가 沼를 이루었는데, 그 물빛이 淸澄함이 비할 데가 없는데, 그곳에 仙女들이 놀다 갔다는 전설이 있어 ‘비선폭포’라 이르는 곳이다.

### 259) 궁예왕굴(弓裔王窟)(영북면 산정리)

궁예왕이 왕건의 군사에게 쫓겨 隱身하던 곳으로 200여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자연동굴



이다. 이 골은 鳴磔山 상봉에 위치하고 있다.

### 260) 보르미(望月洞)(영북면 대회산리)

이 마을은 앞뒤 사방이 모두 산에 둘러 싸여 있어서 달(月) 구경을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주민들은 달구경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이 마을을 ‘보르미’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261) 명덕(明德)(화현면 명덕 1리)

고려시대에 빌발 뒤 塔洞이라는 곳에 明德寺라는 큰 절이 있었다고 한다.

절 뒤에 약수터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주민들이 모여 약수를 먹느라고 시끄러우므로 화가 난 主持 스님이 개를 잡아 그 샘물에 담갔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약수는 効驗이 없어지고, 또 호랑이가 나타나서 그 절에 있는 중들을 모두 잡아 먹었다는 것이다.

1975년에 開闢할 때, 이곳에서는 明德寺의 柱礎들로 보이는 큰 돌이 많이 나와서 큰 절터임을 말해 주었다.

### 262) 서돌골(三石洞)(화현면 명덕리)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에는 쪽두리바위·파녀바위·장군바위 이렇게 세 바위가 있어서 ‘서돌골’(三石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쪽두리바위는 그 바위 윗부분에 新婦가 머리에 얹는 쪽두리를 쓴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파녀바위는 활(弓)을 쏘아 맞히는 관혁(貫革)같이 생겼다고 하여 이렇게 부른다.

또 장군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즉 옛날에 이 마을에서 壯士가 태어났으나, 장사를 낳아 기르는 집은 三族을 멸한다는 나라의 敕命이 있어 이 아이를 죽이자 龍馬가 나타나 슬피 울고 갔다는 것이다.

### 263) 솔치(松峙)(화현면 명덕 2리)

大路가 나기 이전에는 一丈, 加平, 花峴 등지에서 포천으로 가자면 반드시 이 고개를 넘어야만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고개에는 소나무가 워낙 우거졌다고 해서 그 이름을 ‘솔치’(松峙)라고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264) 두문동(杜門洞)(화현면 지현리)

조선 6대 端宗 때 退隱 楊治 선생이 兵使 벼슬을 할 때 단종을 擁衛하려다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隱遁 생활을 하며 杜門不出하였다 해서 이 마을을 ‘杜門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65) 비선동(飛仙洞)(화현면 지현 3리)

이 마을 앞으로는 明德川이 흐르고 뒤로는 松林이 우거진 곳이라 옛부터 선비들이 風流를 즐기고 風月을 읊던 곳이다. 어느날 한 선비가 날 비(飛)자를 썼더니 하늘로 날아가더라는 전설도 있다. 옛날에는 이곳을 ‘비시골’이라 하였으며, 지금은 ‘飛仙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 266) 연릉동(延陵洞)(화현면 지현리)

조선 宣祖 때 三兄弟 友閔, 好閔, 尙閔을 훌륭하게 키워 나라에 큰 인물이 되게 한 延善府院 君 李國柱의 묘가 있다고 해서 이곳을 ‘延陵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267) 광대소(화현면 화현리)

이곳에는 屏風같이 둘러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는데 그 앞이 지금은 논이지만 옛날에는 沼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소에 가로질러 줄을 매고 廣大가 춤을 추며 구경을 시켰다고 해서 이곳을 ‘광대소’라고 한다.

## 268) 섬두둑(화현면 화현리)

온 세상이 물에 잠겨 있던 옛날에 이 마을 뒤에 있는 동산만이 물 위에 떠 있어 여기에 배를 매어 두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마을을 ‘섬두둑’이라 한다.

## 269) 비시락골(雨時洞)(화현면 화현리)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마을은 구름이 끼고 또 구름에서 빗방울이 항상 떨어진다 고 해서 처음에는 ‘우소동’이라 하다가 지금의 ‘우시동’이라 부르며, 속칭으로는 ‘비시락골’이

라 한다.

### 270) 돌부소(화현면 화현 1리)

마을 어귀에 큰 바위 2개가 위치한 자리에 개울물이 흐르면서 작은 淵을 이루었다고 해서 이 마을을 '돌부소'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71) 새터말(新基里)(화현면 화현 3리)

옛적에는 이 마을이 없었으나 그 위치가 좋아 사람 살기가 좋다 하여 새로 마을이 발달되었는데, 이 마을을 '새터' (新基里)라 부르게 되었다.

### 272) 골말(仙村)(화현면 화현 4리)

芝峴리의 飛仙洞이라는 마을에서 神仙이 날아와 이 마을에 下降하였다 하여 이 마을을 '仙村'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

### 273) 영선동(迎仙洞)(화현면 화현 5리)

지현리의 비선동에서 신선이 날아와 선촌에 하강하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을에도 신선이 오기를 迎接하였다고 해서 이 마을을 '迎仙洞'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